



서울大同憲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9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0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棟 | 편집주간: 許 璣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미도구 동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R: 060-0011
영어: 韓學 | 韓學 | www.snu.or.kr

작은 정성이 선후배 마음을 잇는다



본회는 지난 8월 25일 200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1백6명에게 2억3천3백26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4~5면)



후기 학위수여식

(관련기사 16면)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10월 16일 일요일, 관악캠코스에서 만나요!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7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6일 거행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05년 10월 16일(일) △제공용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오전 9시 (金銀鑲교수 CD) 등
- △집합장소: 도교 관악캠코스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첨
대운동장 (林光洙회장 승승차 제공, 대림
산업 李堉龍회장 오도비이 제공)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반 가족 △문의전화: 02)702-2233
- △참가비용: 없음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충추

농부의 아들은 장학금 덕으로 시인이 되었다. 미화원의 아들은 장학금 덕으로 의사가 되었다. 그들은 고교성적이 우수하나 대학에 갈 형편이 못돼 장학금을 4년간 보장해주는 소위 대학에 진학해 하고 싶은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은 시인이 되어 문학창년의 꿈을 이뤘다. 미화원의 아들도 어릴 때부터 소원해온 의과사가 되었다. 시인은 시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또 의사는 의술로 희망을 사술하고 있다. 그들은 장학금의 뜻을 이 루고 수혜한 '빛'을 갈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학금 하면 세 계적으로 잘 알려진 폴브라이트 장학재단과 로즈 장

학재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칸스 대학 총장을 지내고 정계에 입문, 외교통 정치 가로, 유엔의 보태가 된 국제평화유지기구를 제안해 명성을 높인 제임스 윌리엄 폴브라이트가 창설한 폴브라이트 장학재단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개발도상국 인재양성과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인 수혜자만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 포함해 1천여 명에 이른다.

로즈 장학재단은 영국의 자선사업가 세실 로즈의 유지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빌 클린턴 미국 前대통령과 대통령에 출마했던 빌 브래들리, 웨슬리 클리크 등도 이 장학재단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폴브라이트 장학재단의 폴브라이트 또한 이 로즈 장학금을 받았다. 로즈 장학금이 없었다면 폴브라이트 장학재단도 탄생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최근엔 지난 이태내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 달을 딴 미국 휠체어 농구선수인 이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존 케리 미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딸인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총동창회가 올해 두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1백6명의 학생들은 '집념'을 뽐내고 마음껏 학업을 불태울 수 있게 됐다. 이 장학금에는 선배들의 애뜻한 후배사랑과 나눔의 정신, 인간투자 의지가 담겨 있다. 장학금 전달식이 어느 해보다 빛나 보이는 것은, 경제가 더 없이 어려워 재 앞길조차 험롭고 세상이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후학들의 면학을 위해 아낌없이 주머니를 연 선

배들의 훈훈하고 넉넉한 가슴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장학금은 아름다운 투자다

장학금은 사람에 대한 대가 없는 투자다.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의 밑천이다. 장학금은 선후배를 더욱 튼튼히 묶어주는 끈이다.

장학금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손을 통해 끈끈한 락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가 발전한다. 그래서 장학금은 아름다운 투자다. 세상을 밝게 하고 싶었기에 만든다. 수혜 학생들이 각 분야의 재목이 되어 받은 것 이상으로 공평롭게 기여할 때 장학금의 의미는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총동창회 장학기금이 더욱 확충되어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졌으면 한다. 그것이 곧 서울대인의 모교사랑 불씨가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길이기도 해서다.

(續)

만든 사람: 논실위원 金哲漢,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炯均, 南仲九, 金鎮國, 安西樑, 丘月煥, 宋繼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龍,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李元慶, 高永才, 姜天錫, 鄭基永, 朴荷麗, 辛京熙, 朴聖姬, 朴勝俊, 金鎮國, 편집장 安典燮, 편집부 기자 朴亨宰, 表智媛, 金南柱, 梁고무장, 金千鶴

❖ 느티나무 팥장

『TG 한국』으로 손꼽히는 우리에게 화상회의 장면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첨단을 달리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 회의도 화상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다. 하지만 철책으로 굳게 막힌 남북사이엔 이산가족들이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또 다른 감동과 아픔으로 다가온다.

인류문명과 이성을 상징하는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상과 한 가족에게 50년이 넘도록 생이별을 강요한 비인간적 상황이 맞물려 대비되면서 그 비극성이 더욱 감명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입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요소의 이색한 맞물림이 오늘날 한반도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다.

‘화상상봉’은 비록 손을 맞잡고 볼을 비비며 가쁜 숨결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수십 년 쌓인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계기가 된다. 광복 60돌이

지난달 15일, 화면 너머로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얼굴을 대하면만, 막상 병마에 쓰러진 부모는 이미 찰흔 노파가 된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광경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을 그리다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보여주며 애절한 사연을 전하는 눈물겨운 모습은 보는 이 모두를 숙연케 했다.

화상상봉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직접 만나 얼굴보고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쌓인 한을 풀도록

이산가족 '화상상봉' 단상

李元燮

경원대 신방과 교수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

모교는 지식창출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정형 유형의 다양화'와 '전형별로 특정 전형요소s의 비중을 강화하는 '전형의 특성화'를 입학 전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2008학년도에도 현행 입학전형의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시 2학기 모집의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그리고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구분된 현행 입학전형의 틀은 변함이 없으며, 전형별 선발 인원을 서로 비슷하게 조정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을 2007학년도에는 25%, 2008학년도에는 30%로 확대한다.

특기자전형은 모집단위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 주로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예과와 인문계열의 경우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 결과 정시 모집인원이 정원의 약 3분의 1 남짓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
발전형은 지역·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를 주기 위함이며, 특기자전형에서는 모
집단위원과 관련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
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 2008학년도
에서 두 전형 모두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
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적미집 일관전형
에도 전향 방법이 달라진다. 1단계제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전형 실시, 수능 성적
의 지원자격기준, 논술고사의 비중 강
화, 교과와 반영비율의 현 수준 유지가 그
주요 사항이다.

이 가운데 특히 논술고사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문계 열과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는 복수의 제시문을 읽고 하나의 논제에 대해 1백80분 동안 2천

5학자를 쓰는 형태이다. 그런데 2008학년도에는 인문·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수능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 교과 형태(예를 들어 인문계열은 역사와 사회, 언어와 문학,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 등, 자연계열은 인문과 사회과학, 수리, 과학 등)의 문제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시는 특정교과와 전 문 지식을 묻고 그 답의 옳고 그름을 평가 하는 시험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식을 조합하는 과정 과 한 영역의 지식을 다른 영역으로 전이



李鍾璽

(식물73-77)

모교 입학관리본부장

시키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사고요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주도적 학습과 독서 및 토론을 통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인 문제 유형은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학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인할 예정이다.

모교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은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공교육이 진정한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금년 9월 18일은 1899년 노량진-제물포간 32.2km 개통을 시작으로 한국철도가 어언 1백6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다. 철도청이라는 정부조직에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난 한국철도공사는 지금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엄청난 변혁의 출발 선상에서 있다.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철도는 현대 사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도로 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야호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철도교통시스템은 고속화와 대량

1961년 동경 올림픽 개막에 맞춰, 세계 최초로 신간회를 개국시킨 일본은 전한국으로 자신의 교배의식을 펼쳐 버리고 국가와 자라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았다. 프랑스는 이보다도 20여 년 늦게 고속도로를 도입했지만, 한층 진보된 기술과 선진한 디자인으로 영국의 철도종주국 위상과 독일의 기술입국 이미지를 대에 주월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에 달해 경제적 기술 열등국을 극복하고 유럽합국을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부선만 하더라도 대구-부산간 2단계 사업이 남아 있고, 호남고속선과 서울-속초간, 속초-울산간, 그리고 영·호남간 직결 고속선이 연결돼 전국 어디서나 두 시간대의 교통혁명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고속철도 시대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막대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사 출범 초기의 경영여건이 암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3만2천여 철도 가족들은 고속철도의 성공적 경영을 통해 우리 나라에 명실상부한 초고속철도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개척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문산역에 가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기승 저린 글귀와 녹슨 기관차가 서 있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남북철도연결사업이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금년 10월에는 경의선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며,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남북간 물동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 철도는 민족의 아픔과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떠오르
고 있다. 나아가서 남북한 철도운행이 활
성화되면 우리 철도가 중국과 러시아, 그
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장막 2만여 km
대륙철도망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崔然惠

(독문75-79)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화, 삼양로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나라도 작년 4월 1일 세제에서 한 번 큰변로 KTX를 개통시켜 철도산업국의 일원이 됐다. 특히 3km를 달리는 고속철도는 수송량만 놓고 보면 대량 4선식 고속도로와 맞먹으며, 수송 효율면에서도 고속도로의 3배, 기존 버스철도의 2배 이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량 수요와 같은 고속철도를 개통시킨 철도산업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철도의 개통은 단순히 물류혁명에 그치지 않았던 사실이다.

장학빌딩 조감도 확정 ... 건립위 확대 강화키로



본회 장학빌딩건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 한식당에서 제9차 장학빌딩 건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감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와 재미 동문들의 의견, 그리고 참석 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장학빌딩 조감도 제2안을 최종 결정했다. 또 장학빌딩 건립 안내용 팸플릿과 건립위원회

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보 327호에 게재한 3개의 조감도를 놓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 동문 1천6백명을 대상으로 조감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7%의 동문이 제2안을 선택했으며, 제3안(28%), 제1안(15%)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미주 순방시 워싱턴DC·뉴욕·LA지부 동문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도 제2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안 요소를 묻는 질문에 색감, 디자인, 재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채택된 제2안에 하부층을 안정적으로 보인한 조정안(조감도 참조)이 제시돼 참석 임원의 만장일치로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이날 보고된 장학빌딩 건립 안내용 팸플릿 시안에는 각계 유명 동문들의 사진과 함께 장학빌딩 건축개요, 임대수익의 활용 방안, 건축기금 모금에 관한 안내, 출연자 여부 등이 소개됐다. 안내 팸플릿은 디자인,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월말 경 동문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기타 의결사항으로 尹勳煥위원이 건립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구체적인 인선은 林위원장에 맡길하기로 했다.

현재 장학빌딩 건립사업은 재개발 절차에 따라 이 달 중 구역지정 변경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위원장과



앞줄 좌로부터 河權奎·南仲九·鄭八道·李炳均·朴英燾·許瑋勳 등, 뒷줄 좌로부터 金哲洙·金鳳九·李相周·林光洙·尹勳煥·孔大植·金秉順·韓斗鎮 등

尹勳煥·孔大植위원을 비롯해 본회 韓斗鎮·李相均·高炳佑·鄭八道부회장, 朴英燾간사, 許瑋사무총장, 관악회 金秉賢이사, 李相周사대동창회장, 河權奎의대동창회장,

金屬力기대동창회장, 본보 金哲洙·南仲九·朴英燾는설위원이 참석했으며 孫一桓·金仁圭위원은 출장 등 사정으로 위임장을 전해왔다. (南)

제1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26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총동창회장배 제1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처음으로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05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 소: 경기도 여주군 신북면 상동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화: 031-880-0300)
- ◇참가대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 (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진행: 사전발식
- ◇시상내역: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금상, 영문상 등 시상, 출인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준비
- ◇협찬을 원하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021702-2233 / FAX 021703-0755

서울대 총동창회 · 서울대학교

호주 멜버른지부

간담회서 활성화 방안 논의



호주 멜버른지부동창회(회장 鄭勝榮)는 지난 8월 11일 Jackie's

Kitchen에서 본회 孫一桓상임부회장의 멜버른 내방을 맞아 南基英

(지질과학57-61)·金萬石(행정58-62)·柳政子(식물60-64)·裴鍾律(외교69-73)·邱海旭(농업교육70-75)·崔志보(식품공학92-97) 등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하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孫一桓상임부회장은 본국 총동창회 활동사항과 모교에 대한 근황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연초부터 대두된 '서울대 폐교론'에 대한 입장 및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또 멜버른지부동창회의 운영과 동문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동창회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7월 30일 멜버른지부 동창회 관아장학회는 교민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 음의회를 개최해 1천5백불을 모금했으며, 내년 2월중 대학입학성적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6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해 보내드립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10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처

“어려울 때 나라 구하는 서울대인의 사명 다하길...”

분회·단과대 동창회 올해 장학금 총 7억9천8백여만원 수여

분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5 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모교 재학생 1백6명에게 2억3천3백26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2005학년도 1·2학기 장학금으로 분회가 2백17명에게 4억7천8백85만원을 수여했으며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1백89명에게 3억1천9백68만원을 전담함으로써, 올해 모교 재학생 총 4백6명에게 7억9천8백53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분회 許 璠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서울대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이때 장학생으로 참여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이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 鄭憲泰총장은 격려사에서 “학인재산을 출연해 특기장학금을 만든 선배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후배 자신했을 때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며 “장학금을 받는 이 순간이 단지 형식적인 의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를 비친 許 璠(법학부 2년)양이 장학생을 대표해 “이 장학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배움에 열정하라고 격려하는 것이라 믿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서울대인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모교 성악과 출신의 黃亨必(95-03)·金元眞(97-01) 동인이 듀엣으로 鄭憲泰(가악98-02) 동문



분회 林光洙회장(右)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모교 鄭憲泰총장(右)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林光洙회장이 林光洙특기장학금을 전달함.

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곡 ‘시월 에는 멋진 날이’를 축하로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분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海連·金漢澈·郭永驥·鄭恩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安聖植·李鍾基·金榮熙이사, 許 璠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鄭憲泰총장, 趙昌九교무처장, 의대동창회 趙慶益회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郭熙烈현회사, 李元柱 前사립청 임업연구원, 陽東堂학회의 金潤華이사장, 엘크테크놀로지코리아 金錫維교문, 기원외대 김병원 李孝泰의료원장, 무한무지 金性均 사장 등이 참석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수여



金漢澈·韓 榮특기장학금 수여



郭東憲특기장학금 수여



金潤華특기장학금 수여

특기장학금 수여

金漢澈부회장 1억 추가

엘크테크놀로지코리아(회장 金柱津·법학54팀)가 설립한 ‘亞南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엘크테크놀로지코리아 金錫維교문이 모교 재학생 金仁國(컴퓨터공학부 4년)·金俊煥(인류학과 4년)·金錫維(디자인학부 4년)·金所洞(외국어과 3년)·양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1천214원을 전했다.

청아제과병원 金漢澈(치의학 56-60 분회 부회장)이사장과 사위 韓 榮(치의학79-85 정아치과 병원장)등이 설립한 ‘金漢澈·韓 榮 특기장학금’을 통해 김이사장은 치의학과 李修珍(4년)·양과 申正煥(3년)·本羽珠(2년)·沈麗賢(1년)·군 등 4명에게 각각 3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김이사장이 장학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총 4억원(8구좌)을 운용하게 된다.

한국구아노 金榮順(AMP 4기 관악회 이사)이사가 설립한 ‘金榮順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김이사는 의학과 金鍾南(4년)·鄭俊植(1년)·군과 법학부 李廷熙(4년)·由美나(2년)·양에게 총 5백만원을 전담했다.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洪大(수학 57-63 분회 부회장·관악회 상임 이사)이사장이 설립한 ‘洪洪大 특기장학금’으로 盧秉佑(수리과학부 4년)·양과 林潤基(농경지사회학부 3년)·朴勝彬(중어중문학과 3년)·군 등 3명에게 총 5백41만6천원을 보냈다.

상영무대 李鍾基(경영69-73 관악회 이사)사장이 설립한 ‘李鍾基 특기장학금’을 통해 李사장이 李鍾基(컴퓨터공학부 4년)·崔 龍(법학부 3년)·과 朴潤煥(경영학

과 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4백98만9천원을 전했다.

수학과동창회(회장 金永煥)가 설립한 ‘수학과동창회 특기장학금’으로 김회장은 이날 모교 수리와 학부 朴煥辰(4년)·양과 宋秉盛(4년)·李憲熙(3년)·군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3백만원을 수여했다.

경원대 李吉女(의학51-57 분회 부회장)총장이 설립한 ‘李吉女 특기장학금’으로 김씨에(간호학과 1년)·吳國賢(외국어교육계열 1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4백37만4천원을 수여했다.

임광포전 林光洙(기계공학48-52 분회 회장)회장이 설립한 ‘林光洙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林회장은 朴康圭(지리교육과 2년)·南正鉉(동물자원학과 2년)·군 등 2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전달했다.

신양문화재단 鄭錫主(화학공학 48-52 관악회 이사)이사장이 설립한 ‘鄭錫主 특기장학금’으로 姜福記(원자력공학과 4년)·崔允主(기계항공공학부 석사과정)·군에게 등록금 전액 4백79만4천원을 수여했다.

유니온테크 安聖植(형질58-63 관악회 이사)회장이 부인 孫潤淑 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安聖植·孫潤淑 특기장학금’을 통해 안회장은 법학부 尹勝珠(4년)·李寶珠(4년)·양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51만원을 수여했다.

호화공회합공사 郭永驥(토목 56-60 분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郭永驥 특기장학금’으로 이날 郭회장은 朴煥大(공학계열 1년)·金榮彬(경영학과 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4백39만8천원을 전달했다.

임성 張世一(전기공학59-63 관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張世一 특기장학금’으로 閔庚宰(경영학과 1년)·군에게

각 단과대 동창회 장학금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2학기 장학금 수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동창회(회장 俞源子) =4명:3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丁海昌) =14명:2천5백50만원 ▲사대동창회(회장 李相周) =5명:1천560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朴容慶) =35명:6천2백64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彰) =3명:7백43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金鎔) =5명:5백만원 ▲음대동

창회 =1명:3백30만원 ▲치대동창회(회장 丁海昌) =4명: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主植) =2명:7백85만원 ▲경원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 =2명:3백만원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申碩鉉) =1명:2백97만원 ▲한경대학원동창회(회장 郭永驥) =6명:3백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東俊) =2명:2백만원 ▲도시환경교과과정동창회(회장 吳元鎔) =3명:1백50만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日珠) =1명:4백만원

☑ 등록금 전액 1백92만원을 지급했으며, 한국기술포럼 박지환(무역69-74)회장이 설립한 '박지환 특기장학금'으로 경제학부 鄭一玉(1년)군이 등록금 전액 1백41만6천원을 받았다.

간호대학동창회 故 楊銀淑(간호51-54) 명예회장이 설립한 '楊銀淑 특기장학금'으로 이남 楊銀淑 동문의 재녀인 김오나 씨가 간호



장학생을 대표해 趙孝珍양이 답사를 했다.

학과 吳煥貞(4년)양에게 2백만원, 코리아랜드컴파니 鄭八道(AIP 1기) 본회 부회장·관악회 이사·대표가 부인 李善輝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八道·李善輝 특기장학금'을 통해 鄭회장은 산업공학과 梁在鉉(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인 2백44만원을 전달했다.

동일기술포럼 黃海根(토목54-60)회장과 부인 李金玉여사가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기장학금'으로 법학부 金錫眞(4년)양이 1백75만5천원, 화학과동창회(회장 趙光元)가 설립한 '趙光元동창회 특기장학금'으로 화학부 朴惠嚴(4년)양이 2백37만원을 받았다.

자질과학과동창회(회장 梁在鉉)가 설립한 '梁在鉉 특기장학금'으로 지구환경과학부 尹俊然(4년)군이 1백만원, 재미동창회 吳仁憲(행정58-62 본회 부회장)고문이 설립한 '吳仁憲 특기장학금'

을 통해 尹俊然(사회과학계열 1년)양이 1백92만원을 받았다.

오마이그룹 동아시아지역 鄭忠始(화학공학72-76 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鄭忠始 특기장학금'으로 이남 鄭회장은 화학공학공학부 崔文基(1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2백47만6천원을 전달했으며, 한국우드워드 李海連(법학51-55 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李海連 특기장학금'을 통해 이회장이 법학부 朴孝賢(2년)군에게 1백92만원을 수여했다.

故 金道煥(법학43-47) 변호사와 그의 자녀(1년3남)가 공동명의로 설립한 '故 朴 5父子 특기장학금'으로 이남 3남인 무한전자 金性均(경영82-86)사장이 국악과 金尙煥(4년)양에게 2백87만5천원을 지급했으며, 鄭永泰(법학61-65) 변호사가 설립한 '鄭永泰 특기장학금'을 통해 鄭동문이 산업지원학과 張光民(4년)군에게 2백2만4천원을 전달했다.

李相龍(행정53-57) 변호사가 부인 高在鉉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李相龍·高在鉉 특기장학금'을 통해 의학과 金瑞淵(2년)군이 1백50만원을 받았으며, 陽泉장학회 金海澤(경제원68-70)이사장이 올해 설립한 '金海澤 특기장학금'으로 유아사장이 趙相昊(의학과 박사과정)군에게 2백만원을 수여했다.

2명에 기금장학금 전달

李元圭(농생물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설립한 '李元圭 기금장학금'으로 이남 李동문은 생물공학부 柳榮俊(박사과정)군에게 4백37만3천원을 수여했으며, 치과대학 불교대학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盧佛會(회장 李在一)가 설립한 '盧佛會 기금장학금'으로 치위학과 李秉益(2년)군이 1백만원을 받았다.

ROTC 건설인 모임

초대 회장에 金仁相동문 선출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의 '건설인 모임(ROCAS)'이 지난 8월 22일 서울 리노바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골프, 산악모임에 이어 세 번째

로 결성된 건설인 모임의 초대 회장에 비서전설 金仁相(건축67-71, 9기)대표(사진)가 선임됐다. 金仁相회장은 "우선 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주력 하겠으며, 건설인 모임이라는 전



문상에 맞춰 서로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OTC동문회 許銀燾(금속59-63, 1기)명예회장은 "건설인 모임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는 조직으로, 향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정과 끈기를 갖고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인 모임 회원 수는 2백50여 명으로 매년 4차례의 정기모임을 가짐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ROTC동문회 洪宗煥명예회장, 梁在鉉회장, 본회 許應사무총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식품·외식산업과정

9월 27일 세미나 예정

식품 및 외식산업발전 최고경영자과정총장회(회장 朴南衡)는 오는 9월 27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李壽宰(법학62-66)前경제부총리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락처 : 3668-7859)

원예학과

9월 24일 휴커밍데이

원예학과동창회(회장 田永秀)는 오는 9월 24일 오후 1시 소공동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80주년(대표 李道謙) 주관으로 휴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연락처 : 880-4578)



李元靉



時代의 거친 풍파속에서도
미래의 비전은 그대로 우리!

의과대학

상임위서 새 회장단 구성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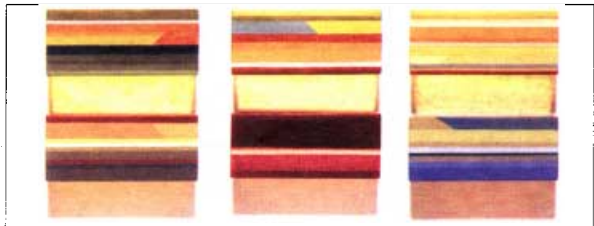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8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촌회관 기전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 임원에게 선임장을 전달했으며 회원명부 발간, 발간기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회원담당 부회장에 모교 의과대학 朴熙賢(의학62-68)교수, 총무이사에 崔仲煥(의학76졸)교수가 선임됨에 따라 새 회장단 임원 구성을 마쳤다. 한편 同會는 오는 10월 4~22일 합촌회관 기전홀에서 제3회 합촌미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南)

동문 작품 장상 전시회



朴昧姝 作 'Inner Light 04', gesso, gold-leaf, pigment, 30×20×10cm / piece×6, 2004.

<작가약력>

- ▲87~91년 모교 미술 서양화와 졸업
- ▲93년 뉴욕에 대학원 졸업
- ▲93~05년 개인전 13회
- ▲99년 동경예술대학 학원 졸업

- ▲00년 토론토국제아트페어 2000
- ▲01년 NICAF-동경국제아트페어
- ▲02년 Seoul Art Fair-2002 화랑미술제
- ▲03년 추추는색채, 사기展
- ▲04년 중국국제화랑미술회
- ▲05년 인공의 지평선, Chicago Art Fair
- ▲현재 서울대·건국대·성신여대·강사

“국정시스템 개혁에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

동문을 찾아서

감사원 田允喆원장

田允喆(법학60·65) 감사원장은 알려진 대로 '전 파대(血竹)'다.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불은 별명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업무철학은 金泳三정부부터 金大中정부를 거쳐, 현 盧武鉉정부까지 주요관직에 重用되는 이유다.

감사원은 田允喆원장 취임 이후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현상에 대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넓은 제도와 비효율적 문화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스템 감사'로 바뀐 것이다.

감사원 개원 57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8월 3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장실에서 田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감사원이 물, 공기 좋은 삼청동에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좋지요. 50년대 서울고등학교가 신문로에 있을 때 삼청동에 가끔 놀러오곤 했습니다. 냇가에 물고기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삼청동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유불린담정’이라고, 탐정소설의 배경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 감사원장에 취임하신지 2년(2003년 11월 취임)이 돼 갑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감사하는 게 관공비 잘못 쓴 것, 회계감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 직무 간찰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사건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취임 당시부터 미시적·단편적인 합법성 감사는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가 카드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감사’를 주창한 것이죠.”

“시스템 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을 고치고 정책을 바꾸는 근본적 처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기관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처와 ‘감사결과에 예산 반영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 감사와 예산을 연계하는 한편, ‘감사결과 37번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감사만큼 언뜻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지방 기금인 IMF 2억여 개였는데 현재 2천5백개로 줄었어요. 지방재정이라

대답 : 본보 차세대설위원
(조선일보 전문기자)

는 것이 내국세의 25%를 지방에 분배해주던 그것으로 지방행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돈을 빼어 만든 기금이 2천5백개입니다. 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제멋대로 기금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정사건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또 12조원이라는 돈이 안 쓰이고 기금으로 들어가 있으니 매년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옛날식 이벤트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할 때 적도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감사로 바꾼다는 것이죠.”

— 지자체에도 자체적인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의 예산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결과제로서 지방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력 수준에서 단순히 감사기구의 소속만 지방의회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기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정하고 깊이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시스템 감사를 위해 평가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큰 흐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감사의 취지입니다. “이 달에 정식 발족할 평가연구원은 시스템 감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부문 평가를 보다 질 높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스템 감사의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능을 지원하고, 정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상



위평가(meta-evaluation)도 담당할 것입니다. 또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의 평가방법 조사·연구,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 감사원장 취임 당시 성역 없는 감사의지를 밝혔습니다. 田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성역이란 어떤 부분이고 그 성역 없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성역 없는 감사는 청문회에서 약속한

는 다른 기관과 구분 없이 엄정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분위기 개선에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해 폐쇄적인 문화가 일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감사원의 주요 간부들을 정부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시켜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있고, 중요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연안회의’를 열어 파감기과의 간부들과 개선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부서별로 하던 업무보고 대신에 올해는 과장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

해 토론하는 ‘감사운영 전략 토론회’를 45일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감사원이 비교적 조용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직원들 전체가 머리를 맞고 감사원의 운영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열띤 토론회 분위기가 조성됐죠.”

“직원들 전체가 감사원의 미션(mission)과 비전, 목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 감사대상기관의 정책·사업, 그리고 감사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석에 기초해 감사전략을 수립하다 보니 과거처럼 상의하달식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원들이 감사전략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 상하·동료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져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문화가 정착해지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 감사원장 임기 안에 ‘이것만은 반드시 완수하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시스템 감사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선진국 감사원들처럼 전문성 높은 국정평가 및 컨설팅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가정책평가 강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낡은 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해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혁신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시스템 감사 위해 평가연구원 설립 감사원 폐쇄적 분위기 탈피에 노력

생각합니다. 다만, 선결과제로서 지방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력 수준에서 단순히 감사기구의 소속만 지방의회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기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정하고 깊이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시스템 감사를 위해 평가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큰 흐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감사의 취지입니다.”

“이 달에 정식 발족할 평가연구원은 시스템 감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부문 평가를 보다 질 높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스템 감사의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능을 지원하고, 정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상

임합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있어서 성역을 두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권력기관으로 불리고 있는 국제청이나 검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과 검찰의 경우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죠.”

“국정원의 경우, 국가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국정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총액으로 편성하고 1차 수령자에게 지급하고 나면 사용증빙도 불리지 않는 등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작년故 김신일 사건 감사 시에 국정원의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예가 있듯이, 앞으로도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경우, 수사나 기소 등의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에 대해서



— 역대 감사원장들과 田眞植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대 원장님들이 대부분 법조계와 군 출신이었는데, 저는 경제관련 출신이라는 점이 우선 다르겠지요. 감사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산장청,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속사정을 낱알이 알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 준 것이겠지요.”

“공직 실무자 시절에 감사를 받아 본 경험이 많다는 것도 전임 원장님들과는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파감기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감사를 피할만 해도 易地難之의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부처의 주요 정책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감사원장 취임 후에도 부하 직원들로부터 몇 마디 보고를 들으면 곧바로 큰 그림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를 할 때 준비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의 최초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쳤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8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셔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 金泳三정부부터 金大中정부를 거쳐, 현 盧武鉉정부까지 주요 관직에 종용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사 원칙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속이 편하기도 하고요. 원칙대로 일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길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에 있는 것을 숨겨두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주변에서 저를 ‘뽕대’라고 부르면서, 그런 성격이 어떻게 그렇게 출세를 했느냐고 농담조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장·국장을 하면서 제 소신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장·차관들한테까지 대들었거든요.”

“군사정권 시절,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을 할 때인데, 당시 ‘유신사부관 제도’란 게 있었어요. 육사출신 중에 대위 때 못 벗고 나온 사람들을 사부관으로 임명하는 것인데, 그 제도를 제가 없앴어요. 사관학교 출신들 진급을 못 시키면 숫자를 줄여야지, 이렇게 양산해 놓고 못 벗게 보내면 서로 문화가 다른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건부의 때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부총리에게 반발했습니다.”

— 고시 합격 후 집안이 꽤 높았습니까. 남달 4년 걸려 올라간 지리 8년에 걸쳐 올라갔다고 들었는데요. 38년 동안의 공직 생활 중 어려웠던 기억을 말씀해 주신다면.

“공직 초기 관문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과장 승진이 늦어졌던 것은 초임 발령을 법제처로 받았다가 경제기획원으로 부처를 옮긴 탓도 있었고, 지역차별도 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뚜렷한 이유가 승진에서 밀리는 일이 몇 차례 있었지요. 정말 그 때는 북한 마음과 모국감으로 너무 괴로운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그만

둘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시다.”

“스스로 돌아볼 때, 공직생활 내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고민하면서 일과 씨름했던 날도 많았습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업무 외의 사적인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시키면 그 조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인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시다.”

— 원장님만의 특별한 직업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때 군밤 팔다 가짜학생 ‘오해’도 교육열이 60년만에 경제대국 이뤄



“직업을 독일어로 Beruf,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을 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합니다.”

“시대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공직사회는 여전히 국가의 정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한 열정과 책임감,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들이 미래 우리 공직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 시절 군밤을 팔아 학비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부는 잘 했던 편이어서 목포 유달중학교에 수석입학, 3년 내내 수석을 하고 목포고등학교에 진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목포고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를 찾아와 ‘3년 간 학비를 전제해 주고 용돈까지 줄 테니 서울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저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서 서울고와 경기고의 입학원서를 들고 상경했습니다.”

“친척의 권유로 서울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고생길이었습시다. 신문배달부터 군밤장수까지 교화를 하는 밤의별 일을 다 했지요. 보통 고교 시절 학원 낭만을 떠올리지만, 저에게는 힘들고 이른 기억밖에 없습시다.”

“그렇지만, 잠잠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책을 읽고 나뉘대로 지적인 탐구도 하며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기도 하죠.”

— 그런 당시 하숙을 하셨습니까.

“입주 가정교사를 하며 지냈어요. 가정교사 자리는 우연히 구하게 됐습시다.”

“활동 시간당건 건넌편에 파출소가 있었지요? 예전 그 옆에 한일관이 있었고 그 옆에 삼호당이라는 빵집이 있었습시다.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제가 그 앞에서 군밤 장사를 했습시다. 일요일날 심경책을 손에 들고 병동성당에 가는데, 그 빵집 아주머니가 부르더니 ‘군밤을 파는 놈이 서울고 교복을 입고 다니냐? 저 가짜 학생 아냐?’ 하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정보를 알고 그 거리를 찾아 나섰습시다. ‘인텔만 거리가 어디냐(Wo ist die imman strasse?)’를 수도 없이 물었습시다. 결국 디식당을 찾아 관장에게 설명을 두 그릇이나 먹었습시다. 그런데 배탈이 나서 한참을 고생했습시다.”

“이후 경제부총리 시절 워싱턴에서 (현 독일 대통령인) 호르스트 콜러(Horst Kohler) IMF 총재를 만났는데, 그 때 독일어로 인사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두 번 사용해 됐습시다.”

— 한 신문에 어머니에 대한 단상을 기고할 정도로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구나 그랬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6남매 중 맏내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는 지독한 인고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어머니도 시골집을 떠나 목포로 와내 판자집을 짓고 집문들을 상대로 3년간 밤 장사를 하였어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도내제 집을 주무시는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습시다.”

“제가 서울로 유학을 하면서부터는 고향에서 잠잠이 도둑장사를 하였고, 편지로 遺囑(遺囑)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시다.” “대학 4학년 때 가정교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청량리 홍릉 산기슭에 판자집을 하나 지어서 어머니를 모셨습시다. 그해 가을, 고시 공부하러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했드리고 떠나보낸 어머니라 더 가슴에 사무치고 애절합니다.”

— 미지마로 후학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사나시와 우리 나라가 광복 후 불과 60년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교육열에 바탕해서 배출된 우수한 인력 덕분입니다. 우리 사대의 후배들이 자신들은 헬벗으면서도 후배 교육에 힘써줬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보다는 지식 중심의 성장이 주도되는 지식기반경제사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WTO의 주도 하에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경제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습시다.”

“부총리였을 때 우리 나라가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낙오하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혁신 지식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시다.”

“특히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형성할 엘리트들이 실력과 함께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배 여러분들이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 습득과 함께 꾸준한 자기수련에 매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통행정보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金南柱기자)

“서울대 독자 입시안 갖는 것 당연하다”

특별 인터뷰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 도쿄대 총장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작년 4월부터 국가의 보호·관리에서 벗어나 ‘국립대학 法人’이 되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대의 움직임은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인이 된 대학을 맡은 도쿄대에는 공대 출신의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60세) 총장 주도로 ‘세계의 최

頂點’을 지향한다는 ‘행동계획(역선편람)’을 마련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 4월 제28대 도쿄대 총장에 취임한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 총장은 도쿄대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지난 8월 2일 본교(本郷)캠퍼스의 총장실을 찾아 그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鄭慶雄(정지훈 81-85)
조신일본 도쿄특별점

“도쿄대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일본이 30년 전에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쿄대도 당연히 선진국들 목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메이저 유신 이래 일본은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그런 발상이 없었다. 지금 세계의 대학을 보면 미국 대학밖에 안 보인다. 도쿄대, 서울대 등 아시아 대학들도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주장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일본은 高度化, 少子化(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말함), 환경문제 등 課題 산진국이다. 모험을 쫓아가는 시대에서 스스로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도쿄대가 만드는 모델이 세계표준이 되어야 한다. 지식의 수입만이 아니라 선두에 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취임식에서 “τίπολο를 들고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이 도쿄대의 장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도쿄대학이 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MIT 등에 자신 안 된다. 얼마 전 총장 임기 4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은 ‘역선편람’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의 본원은 교육과 연구, 거기에서 학제, 빈곤 등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위해 조직운영, 국제 교류, 대학재정 등에 대한 플랜을 다시 썼다. 내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 함께 만들어서 외부에도 공개했다. 이제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학의 재정기반 구축을 많이 강조해왔는데,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2조엔의 대학기금으로 연간 2천5백억엔의 운용수익을 얻고 있다. 이 운용수익만으로도 도쿄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의 2배 이상이다. 정부가 주정한 경제제정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 ‘도쿄대학은 재정이 풍부한 미국 대학의 50위, 1백위권의 기금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나는 대학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 물품을 효율적으로 써서 구매하는 것부터 강조하고 있다. 절약이라는 말이 대학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느낌을 주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도 있지만, 민간 기부금이 중요하다. 작년 한 해 기부금만 60억엔을 모금했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3년 무에는 기금



지난 4월 제28대 도쿄대 총장에 취임한 고미야마 히로시 총장(左)을 鄭慶雄(정지훈)이 만나 보았다.

기초학력 강화·학술 통합화 주력 학술 최고 지향·세계적 모델 개발

축적분만 1백30억엔을 모금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왜 1백30억인가 하면 2007년이 도쿄대 개교 1백30주년이기 때문이다. 이 모금계획을 ‘도다이(東大) 130’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대학의 교육 연구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 총장이 ‘행동계획’에서 강조한 ‘학술통합화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하다는 느낌을 준다.

“20세기는 인간의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지식이 폭발한 세기다. 아마도 전 배, 만 배는 늘었을 것이다. 사람의 두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체를 알 수 없게 됐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다. 21세기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과학이란 원래 세분화해 나가는 속성을 안고 있지만, 세분화된 학문에 새로운 통합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학술통합화 프로젝트’다. 컴퓨터 상에서 인간을 재현하는 ‘인간 시뮬레이션’에서 시작해 인공지능, 지구, 우주에도 도전한다. 당장 인간 프로그램부터 시작했는데, 계층의 관점에서, 단백질의 관점에서, 신경계의 움직임에서 여러 가지 에프프치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합시키는 작업이다.”

“세분화되는 과학을 전체로 통합하는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

운 학문의 형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통원을 갖는 지식이 각자 연구실에 흩어져 있으면 인간의 전체상을 그릴 수 없다. 법학과 공학의 연구자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인접한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학술통합화의 선두에 도쿄대가 서겠다는 것이다. 도쿄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지난 7월 26일 발표한 ‘고미야마 개혁 플랜’에선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문과·이과를 불문하고 필수 기초과목 학습수를 늘려 폭넓은 교양을 익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보충수업 같은 것은 아니다. 도쿄대학에는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레벨의 연구자들이 있다. 기법 수학·물리 등 기초학문의 최첨단에서 어떤 연구가 이뤄지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본래 학문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등을 강의해 학습의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를 앞두고 자신이 없어진 학생들에게 거칠기는 하지만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술통합화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교양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3~4회 시리즈 강의로 학점을 인정할 것이다.”

“도쿄대의 국제적명성은 어느 정도라고 자평하냐.

“올해 2월 영국의 타임지가 발표한 대학 랭킹에선 자연과학·공학 정보공학에서 도쿄 대학은 7위였다. 학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나 그 대학에 어느 분야에서 최고급의 연구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만, 수치로 발표가 되니까 조금 신경은 쓰인다.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학랭킹의 1백위권 안에는 일본대학으로는 도쿄대, 교토대, 도쿄공업대학, 오사카대학 등 4곳만 포함됐지만, ‘포브스’의 기업랭킹 1백위권 내에는 일본기업이 10여 개가 포함됐다. 대학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한국에선 서울대의 독자입시 입시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鄭慶雄(정지훈) 총장이 기존의 평준화 교육도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일부 정치세력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한·일간의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보는가.

“서울대에 독자입시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충격이 높았다. 일본도 대입 개혁 논의가 있지만 대학은 각자 나름대로의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센터시험’은 있지만, 대학이 별도로 다시 시험을 치른다. 당연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 통일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일본과 대학제도도 비슷한 한국이 ‘서울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쁜 상황인가.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가면 된다.”

“도요타 자동차 등이 주도로 내년 개교할 예정인 ‘가이오(海城)중등교육학교’는 국가센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국의 명문사학 이튼스쿨이 모델이다. 엘리트 교육 불문 어떻게 보냐.

“아주 바위처럼 움직인다고 본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도야마(田山)도 읽고 출신이다. 히라이마(日比野)고와 나란히 명문 도립고였었다. 내가 졸업한 뒤 얼마 안돼서 학부제(한국의 고교평준화에 해당)로 바뀌면서 그런 명문고가 사라졌다. 학부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요즘 학부제 폐지 움직임 등 공교육 개혁 움직임도 그런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개성 있는 교육이다.”

“총장이 구상하는 미래의 도쿄대학상은 어떤 것인가.

“사태의 전환을 말한다. 한바탕이 요악했다. 교육 연구분야에서야 당연히 세계의 ‘최고의 頂點’을 지향한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자원 고갈, 빈곤 등 큰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학이냐 당연히 교육 연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대학이 가장 좋은 곳 아닌가.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도쿄대학상이다.”

“법임의로든 법안이든 하는 연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대 출신 교수가 총장이 되니까



그런 격정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哲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文學이 없는 종합대학은 있을 수 없다.”

—과거 천하를 논하던 도쿄대 학생들이 요즘은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은 국가와 기업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통해 개인을 추구하는 사회였다. 지금부터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리더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올해 들어 후지 TV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유명해진 벤처기업 ‘리브로아’의 호리마 다카후미(堀江貴文·32세)사장에 대해서도 ‘일본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보는 사람들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나쁜 모델이라고 보는 사람들로 여론이 갈라졌다.”

—도쿄대학은 앞으로 일본의 대학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대학’이 될 수 있다고 보나.

“리더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도쿄대학은 일본 안에서 머물면 안 된다. 세계의 리더대학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세계를 향해 뚫고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그렇다고 유니파케이션(unification·획일화)은 반대다.”

“세계인 모두가 영어를 하고, 모두가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는 그런 세계는 원하지 않는다. 각각의 대학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각 나라 leading대학의 책임이다. 도쿄대학은 일본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책임이 있다.”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는 총장이 되고 싶다.

“임기를 끝낸 후 상당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내가 주도해 만들고 발표한 ‘역선물론 2004~2008년 정치인으로서 치른 정책공약’ 같은 것이다. 나중에 ‘고미야마라는 사람은 허풍선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이다. 도쿄대학이 법인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서로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어디까지 지시하고 받는 관계가 되어 하나?”



• 고미야마 총장은 ...

도쿄대학이 법인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작년 9월 총장 선거에서 재선이 유력해 보이던 법대 출신의 현직 총장을 꺾고 당선돼 화제가 됐다. 당시 선거는 문과와 이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도쿄대학을 학술에서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그의 호소가 변화를 열망하는 소장과 교수들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고미야마 총장은 “뭐라고 해도 보는 것 보다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행동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사람의 몸 안에서 내장이 각각 움직이고 있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자유롭게 학문을 해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협조를 위한 리

더임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1967년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강사 조교수 등을 거쳐 1988년 교수에 취임한 뒤 대학원 공학연구과장, 부총장, 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전공은 화학공학이지만, 지구환경과 및 에너지, 빈곤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부총장 시절인 지난 2002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산업재정을 위한 ‘움직여라 일본’이라는 제언을 내놓는 등 대외활동에서도 주역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지구지속의 기술’, ‘入門 열역학’ 등이 있다.

“대학운영이 자유롭게 됐다고는 하지만, 족쇄가 상당히 남아 있다. 나는 말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과도기다. 이제 확실히 매듭지을 단계가 됐다. 앞으로 1년쯤 되면 확실하게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올해 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를 어떻게 보나.

“나는 중국에서 가장 반일대모가 격렬했던 4월 말에 중국에 갔다.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과학원이 참가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로 미리 예정이 돼 있었다. 주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는 갔다.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기본이다.”

“안 좋은 때도 있지만 평가를 함께 추구하다 보면 사이가 좋아지게 된다. 학술분야도 그런 분야 중 하나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술분야에선 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다. 서울대의 鄭東泳(정동영)총장은 전공 분야는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한 사이다. 올 초에도 싱가포르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물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까울 뿐

이다.

—총장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뭐든지 즐겁게 일하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수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지적호기심을 활짝 꽃피우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항상 자적인 경계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좌우명은 ‘정의가 이긴다’. 너무 단순하다. 취미는 스포츠. 대학시절 아메리칸 풋볼 대표선수를 한 적도 있다. 스포츠는 다 좋아하는 편이다.”

—요즘 너훈게이시지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 ‘사람의 유형지’를 읽고 있나? 소설 테마가 기존 남녀의 ‘不倫地愛’에서 중년 남자들이 사이에서 아주 회색이 되고 있는데,

“소설을 좋아하지만, 그런 에로소설은 안 읽는다. 한두 번 읽어봤는데, 도무지 문학의 향기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없더라.”



• 도쿄대학은 ...

올해로 개교 1백27주년을 맞는 도쿄대는 일본 사회에서 ‘학의 頂點’으로 군림해왔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에 성공한 지 10년째 되는 1877년 도쿄가이세이(開成)학교와 도쿄의학교를 합쳐 도쿄대학으로 개교한 뒤, 1886년 ‘제국대학령’의 공포와 함께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등 5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국립종합대학으로 발바꿈했다. 당시 도제제국대학의 설립목적은 ‘국가를 위한 인재양성 기관’(제국대학령 제1조)이었고, 패전 후 현재까지 그런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2003년 제정된 ‘도쿄대학 헌장’에서 ‘도쿄대는 개교 이래 근대 일본 국가의 발전에 공헌해왔다’며 자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오만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도쿄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역대 총리 15명을 배출했고,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12명중 5명이 도쿄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립시험과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각각 2백1명, 4백88명이 합격해 타 대학을 압도했다. 2003년 총선거에서는 중의원 당선자 4백80명중 22%인 1백4명이 도쿄대 출신이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1명의 엔지니어가 1만명 책임진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학에 공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세기 들어서야 겨우 물리학과 미래에 공과학과(Department of engineering)가 1908년에 개설되었을 뿐이다. 1861년에 공학 칼리지로 세워진 미국의 MIT보다 무려 47년이나 늦었으며, 일본이 도쿄제국대학에 공학부를 설치한 1886년과 비교해봐도 20년 이상 뒤졌다.

옥스퍼드대가 공대가 아닌 공학 화과 설립조차도 늦게 세운 것은 영국 귀족층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그들은 과학(science)은 신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으나 공학(engineering)분야는 신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토잡혀 있었다.

19세기말 들어서 영국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결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에로부터 물러서게 된 바탕에 옥스퍼드대학의 고집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기 어렵지 않다.

옥스퍼드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하버드대학도 설립 초기부터 공과대학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이곳에 있는 MIT에 우수 인재를 빼앗기고 있었고 21세기 학문간 융합현상이 뒤처지고 있다고 하버드는 평가했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H. Summers)총장은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기술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10억달러를 투자해 MIT에 필적할 '하버드 공대'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최근 하버드대학 홈페이지에는 기술관련 뉴스로 항상 채워져 있으며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비단 하버드대학의 변신뿐만이 아니다. 교수가 되기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독일의 대학도 주니어 교수제도를 도입해 젊은 공학박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는 전통을 고집하고 권력과 권위에만 매달려 있으면 대학이건 국가건 살아남 방도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취재현장에서 보면 국내 대학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교수들이 기업체 사람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기업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키우면 좋을 것인지 부담 없이 의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기업체 사람들도 대학에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소스럼없이 주문한다. 단순히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연구성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각 대학 공과대학에서 경영학 강의를 하는 곳도 늘고 있다. 기업 입원이 되려면 경영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과 디자인도 잘 알아야 하는 소위 '슈퍼맨'을 요



吳 春 昊
(연락처-86)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 차장

구하고 있다. 홍보도 열성적이다. 서울대 공과대 홍보 인력을 두고 홈페이지(www.beengineers.com)를 개설해 대학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몰려다녀며, 정보를 접하고 있다. 많은 대학 교수들도 홈페이지에 글을 띄우며 이렇게 소개를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런

의 열속한 상이탁 분위기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새로운 학문분야도 적극 개척하고 있다. 학문간 융합현상이 일면서 생물과 컴퓨터기술이 만나고, 나노기술과 컴퓨터가 만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게임이나 예니메이션 등 젊은 취향에 맞는 분야도 생겨났다. 이를 문화와 기술을 접목한 문화기술(CT) 분야라고 한다.

특히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을 타고 이러한 분야의 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20세기에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한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이르게 출신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21세기에는 국가간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최전선에는 엔지니어와 사범가, 연구자 등 과학기술자들이 책임지고 있다. 이른바 참여정부가 애기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빨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일일신(日日新)하고 우일신(又日新)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공대 홈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서울대 공대 출신의 유명한 엔지니어 한 명이 1만명 이상의 삶을 책임집니다'라는 글귀가 새롭게 다가온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좋은 형제(Bon Frere)'같은 감독 나오길

2005년 8월 23일 대한축구협회는 이른 아침부터 들쭉거리기 시작했다. 각종 언론사가 40여 명이 몰려있고, YTN은 중계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축구팬은 협회 직원 앞에서 '봉투대 GO HOME'이라는 대형 팻말을 몸에 두르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오전 10시30분, 10명의 기술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나타났다. 그 중엔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洪明浦씨도 있었다.

회의에 앞서 주어진 5분의 취재시간. 기술위원장의 의미심장한 모두발언이 있었다. "일단 오늘 안에 결집여부를 결정 하겠습다. 결과는 하지 않고, 모든 기술위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기자들로 돌아온 기자들은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며 각종 추측들을 내놴다.

"표결하지 않으면 유임되는 거 아냐?"

"노인네들 의견대로 가는 거지, 뭐."

"젊은 경질자들이 선배 말 거역했어?"

유임하자면 '네~' 해가지."

"합의는 무슨...?" 모두들 유임 가능성을 늦게 봤다.

그리면서 기자들은 부지런했다. 일찌감치 본프레레 감독 결산 기사를 쓰며 정보를 나눈다. "본프레레 전에서 통일축구

는 빠야 되는 거 아냐? A책지도 아는데..."

"그래도 3 대 0으로 이겼는데, 하나 써 줘. "난 뻔해..."

오후 2시30분, 예상보다 빨리 기술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위원장이 어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본프레레~에(李 春福)위원장은 본프레레를 이렇게 부른다.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사의를 밝혀주셨습니다. 기술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습니다."

'본 프레레(Bon Frere)'는 프랑스어로 좋은 형제(Good Brother)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나쁜 추억만 남긴 채 떠났다.

정확히 4백32일, 재임기간에 본프레레의 성적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들쭉날쭉했다. 전차군단 독일을 3대 1로 꺾기도 했고, 8명이 썩은 중국과 비겨보기도 했다. 그리고 사우디에게 안락치목을 당하며 끝내 언론과 언론의 못매를 견디지 못하고 그는 짐을 싸야 했다.

24전 10승 8무 6패.

"색깔이 없다" "헤이파만 쓴다" '선수들을 비효율적으로 기용한다' '위기 대처능력이 없다' '선수 탓만 한다' 등등, 그에 대한 많은 비난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퇴진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프레레의 퇴장이 결정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온 이유는 뭔가?

"과연 그가 한국축구를 망가뜨렸는가?"

"이 모든 부진이 선수 탓만 하면 감독 탓인가?" "한국축구가 세계 4강국이라는 환상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

필자 혼자 되묻기도 했고, 많은 주변인들이 던졌던 물음. 모든 책임을 감독이 뒤집어쓰고 물러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朱 英 珉
(연락처-91-97)
SBS 스포츠
취재부 기자

아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화려한 과거를 잊지 못한다. 항상 그 날을 기억하며 바로 이 순간도 화려함을 뽐내려 한다. 하지만 항상 현재는 원전이다. 일본에게 지고, 사우디에게도 지

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축구의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화려해 지고 싶다면 말이다.

단지 감독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그를 선택한 축구협회의 인위한 대처, 한국 축구 수준을 너무 높게만 평가했던 국민들, 감독 기대만 부풀린 채 모든 책임을 감독에게만 떠넘겼던 언론까지...

필자는 본프레레와 함께 한국축구가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좀 더 나아지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우리 본프레레를 보냈다. 단지 2006년 월드컵드라마를 위해서가 아니다. 10년, 20년 뒤에 한국축구는 계속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퇴임이 결정된 이후 본프레레는 많이 변해 있었다. 그렇게 언론을 싫어하고 외면하더니, 이제 카메라 앞에서 킥도 많은 말들을 늘어놓는다. 특히 항상 빠 놓지 않는 말이 있다.

"다른 감독이 와도 한국축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축구협회를 비롯해 자신을 비난한 언론과 언론에 대한 서운함의 표시일 것이다. 떠나는 감독으로서 이런 악감을 해소한 안 되는 거지만, 그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조만간 새 감독이 올 것이다. 외국인이라든 한국인이든. 본프레레가 남긴 나쁜 기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모두가 새롭게 킥오프(kick-off)를 해야 한다. 또 다시 감독 탓만 할 순 없으니까...

건강을 지켜시다

비타민 제재 과신 말라

우리 몸은 노화를 함에 따라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당뇨병 등 각종 질환에 잘 걸리게 되고 결국은 병들어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노화에 따른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각종 세포와 기관들이 활성산소와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 공격을 받아 산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화의 산화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비타민들을 특별히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에는 비타민 A,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E(토코페롤) 등이 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시금치 등의 녹색채소 및 각종 과일에 많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C는 감귤류의 과일을 비롯한 각종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E는 주로 식물성 식용유, 정제하지 않은 곡류, 녹색채소, 견과류 및 콩류 등에 풍부하다.

그럼 항산화 비타민을 따로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최근 대규모의 잘 계획된 연구들을 보면 일관되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비타민E의 경우 하루 1백50단위 이상 먹을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고, 심부전증이 더 잘 생겼으며, 위장관계 암도 더 잘 걸리고, 치매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타민A는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잘 걸리며, 베타-카로틴은 음식을 통해 먹을 때는 폐암 발생을 줄였으나 정제로 먹었을 경우 오히려 폐암 발생을 증가시켰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도 증가시켰다. 비타민C의 경우 특별히 해를 주는 않지만 장기 복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실제 암이나 심장병의 발생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이나 야채에는 항산화제가 적정 비율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성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 몸이 좋지만, 특정 비타민을 추출해서 항산화제로 먹을 경우 특정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이런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이 아닌 종합비타민은 괜찮을까?



朴珍浩
(의협92-98)

모교 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예전 못 먹던 시절에는 영양이 부족해 일부 비타민 결핍에 의한 질환이 나타나곤 했으나 현대는 영양 과잉시대로 일반인적인 식사를 하는 분들은 비타민 결핍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종합비타민을 먹어서 별도로 득을 볼 만한 것은 없다.

평소 각종 야채나 과일을 계절에 맞게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을 통한 항산화 요법이다. 이와 더불어 빨리 걷기 등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원문처: 2112-5647)

나의 건강법

小食하며 적당한 상·하체 운동 병행

表 在 演 (법학55-59)한별 건강·운동·장수대학 회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유전적인 요인을 제쳐두고 두 가지만 든다면 음식과 운동이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건강법으로 흔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小食多動'을 든다.

일본에는 "배 8부에 질병 없다"는 속담이 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과식에 있다는 뜻이다. 소식이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동물실험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소식 건강본을 보충한다면 천천히 많이 씹어 소식하되 여러 가지 음식을 고루 먹는 '小食'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아침식사를 사과 한 개에 흰 쌀밥 한 두 가지와 우유 한 잔 및 꿀과 발아 들어간 찹쌀떡 두 서너 쪽이나 수식 가지 영양소가 혼합된 미숫가루와 물무를 섞은 죽을 먹고, 점심에는 보통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보리밥을 자주 먹으며, 가끔 삼계탕이나 보신탕, 추어탕, 또는 살비 뷔페(가격은 3천5백 원, 반찬은 50여 가지)를 먹는다. 점심을 조금 많이 먹거나 잘 먹은 경우에는 저녁식사를 거르거나 과일주스에 반찬으로 건빵 몇 개로 때운다. 간식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금연 절주하고 탄산수는 마시지 않으며, 몸은 식사 중간에 하루 8~10잔을 마신다.

운동을 참하면 최고의 補藥이 되고 잘못하면 毒藥이 된다. 프로선수 출신의 평군수령이 언론인 다음으로 한다는 조사통계도 있다. 운동 중 가장 나쁜 것은 새벽 등산이고, 두 번째로 나쁜 것은 과도한 운동이다. 수십 년 하던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나 무릎이 통증을 와서 중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운동의 원리를 잘 모르고 무리한 운동을 한 경우에 흔히게 나타난다.

운동의 원리를 터득하면 70대 이후에도 운동 강도와 양을 젊음이 못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 7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매



일 아침 걷기와 조깅,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오기(下登梯) 및 아파트 놀이터에서 턱걸이와 맨손체조 등을 번갈아 40~50분 동안 한다. 1주일에 한두 번은 산에 올라가 산 중턱의 간이 운동장에서 맨손체조, 턱걸이 등을 한다. 사우나탕의 열탕에서는 20~30분 동안 반신욕을 한 다음 냉온탕을 서너 번 돌려가리면서 냉탕에서는 10~15수영을 하며, 탕 바다에서는 맨손체조,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맥반석이나 참대의자에 두서너번 한다. 팔굽혀펴기는 집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걷거나 계단 오르기(登梯) 및 등산을 하면 허반신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으나 상반신 근육 운동은 불충분하므로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병행하면(턱일도 루방) 상·하체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 '불평'이 없더라도 면역력을 강화시켜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대 가족

金昌根 학교법인 연성학원 이사

부친·차남 3대가 법대 졸업 같은 길 걸어 “초지일관하며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신조”

3대가 걸쳐 한 명씩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공직의 길을 걸어온 동문 가족이 있다. 金昌根(법학51-55 학교법인 연성학원 이사)동문과 부친 金榮步(경성법전23졸)동문, 그리고 차남 金翰秀(사법86-9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동문이 그 주인공.

게다가 부인 鄭金珠(교육51입)동문과 장녀 金希靜(가정관리80-84)동문, 장남 金憲秀(신문82-86 이데일리 기획관리본부장)동문과 사돈 尹夏奎(경제55 59 前우형실업 감사)동문이 모두 모교를 졸업했다.

고향이 평안남도 순안역인 金昌根동문의 부친과 둘째형은 불행히도 6·25전쟁 중 미처 월남하지 못하고 평양에 남게 돼 지금도 생사를 모른다.

“부친계선 행정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군수를 지냈는데, 일제시절 장씨계명에 불응해 직책을 박탈당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광복재건사업에 참여하던 중 반공세력으로 몰려 옥고를 치르시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관직생활에도 변변한 집 한 채 없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헌신이 자상하고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金昌根동문과 부인, 세 자녀가 모두 같은 대학을 나왔듯이 金동문을 비롯해 부친, 숙부, 첫째·둘째·셋째형과 매형까지 모두 평양의 명문학교인 平壤高靑를 졸업했다.

“아버지 때부터 가족 중 한 사람이 명문 학교에 입학하면 형제나 그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입학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부친과 저 그리고 차남, 이렇게 3대가 같은 대학에서 그것도 법대를 졸업하게 된 것도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金昌根동문 가족의 남다른 이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남인 憲秀는 12월 25일에 태어났는



뒷줄 좌로부터 金翰秀, 한 명 건너 金憲秀동문.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金昌根·鄭金珠 동문 부부, 맨 끝 金希靜동문

데 특이하게도 큰머리는 음력 서기탄신일, 큰손자는 공복절인 8월 15일, 그리고 큰녀는 5월 16일에 태어났어요. 또 저와 아내는 동갑내기 양미, 막내인 翰秀도 양띠이고, 憲秀는 토끼띠, 希靜이는 소띠 이렇게 모두 초식동물(?)로 구성돼 있으며, 큰머니리와 큰손녀도 양띠이다 보니 성격도, 생활도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공공장교로 제대후 후 국토건설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金昌根동문은 이후 40년 가까이 행정자치부 전신인 총무처 중앙사정위원회 감사·소청업무 담당관, 감사원 법무·조정과장, 서울시는평구청 부청장, 서울시지방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반면 부인 鄭金珠동문은 교수의 꿈을 안고 모교에 입학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金昌根동문을 만나게 됐다고.

“집안끼리 잘 알고, 아내와는 고향이 같아 금새 마음이 통했어요. 박봉의 월급에도 자녀들을 올곧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입니다. 아내는 종종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뒤에서 지켜보거나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등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를 제일로 생각하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죠.”

초등학교 시절, 피아노 콩쿠르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장녀 金希靜동문은 외국계 은행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을 자랑했으나 결혼 후 자녀교육에 전념하며 현재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 작부터 섭렵하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던 장남 金憲秀동문은 졸업 후 매일경제신문 경제전

金昌根동문의 서울대 가족

부 친	金榮步(경성법전23졸)
부 인	鄭金珠(교육51입)
장 녀	金希靜(가정관리80-84)
장 남	金憲秀(신문82-86)
차 남	金翰秀(사법86-90)
사 돈	尹夏奎(경제55-59)

문기자로 활동하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온라인 경제·금융전문사이트(ecdaily.co.kr)를 설립, 현재 국내 증권사·은행·언론사·포털사이트·이동통신사 등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남 金翰秀동문은 변호사에서 검사로 직업을 바꾼 특별한 케이스. “처음엔 변호사로 활동했으나, 웬고 그림을 떠나서 한 개인·기업의 위해 변호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초지일관, 正道의 길을 걸으며 그저 분수에 맞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래서 막내인 翰秀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검사직을 택하게 됐어요.”

모두 원리·원칙대로 살다 보니 때론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우리 주변엔 친구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땐 제 직장 동료들과 아이들이 매일같이 놀러오는 바람에 열새같이 음식을 대접하느라 아내가 제일 고생이 많았죠.”

인터뷰를 마친 후 金昌根동문은 지난 8월 손자들과 함께 속초에서 손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가족들의 밝고 환한 사진들을 카메라에 많이 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토로했다.

(表)



2천1백73명에 후기 학위수여

한류열풍의 日·中·몽골 유학생도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각 단과대학(원)별로 거행돼 학사 1천22명, 석사 7백60명, 박사 3백91명 등 모두 2천1백73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 수는 30만3천5백98명(준회원, 특별과장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 수와 동창회 회원 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학원현황

구분	인원	총합
이공대학	100	9,584
사회과학대학	130	12,392
자연과학대학	69	9,460
간호대학	1	3,163
간호대학	60	5,673
공과대학	291	38,133
농림생명대학	68	19,251
문리과학대학	1	9,731
미술대학	30	4,665
법과대학	80	15,049
사범대학	138	24,146
상과대학	1	6,723
철학대학	18	3,586
주요대학	1	2,034
의학대학	1	5,796
물리대학	36	6,774
지구대학	1	10,459
지구대학	1	5,796
대학원	1,023	73,465
경영대학원	1	701
공학대학원	1	553
국제대학원	23	130
국제대학원	45	2,835
사범대학원	1	536
신학대학원	1	264
행정대학원	10	3,974
행정대학원	30	2,579
수업계	2,773	277,275
수회계	1	3,338
(특별과장 포함)	7-4	12,985
총계	2,887	303,598

교수 감의평가제 도입 우수교원 청년 보장

모교는 지난 8월 3일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내외 우수 교수에게 재정지원이나 승진 또는 청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의 질 제고 방안' 세부 추진과 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모교는 교육력 개선을 위해 국내외 외부 전문가가 직접 해당 강의를 참관해 평가하는 것과 한 학기 동안의 시험과 과제 등 강의 관련 자료



학위 받은 탈렌트 김태희 등문

련트도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과 학과에 의무학에 입학한 김태희 씨가 6년만에 학사모를 쓴다고 최근 한류 열풍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대학원에 중국 출신 조반, 몽골 출신 수크리야사 문화사관급, 일본 출신 오이카와 히로에 등 인접 아시아 국가 여성 유학생들이 학위를 받게 돼 화제가 됐다.

특히 수크리야사 문화사관급 씨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문화' 몽골의 '한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몽골에서의 한류 열풍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그는 "몽골에서는 요즘 화장품, 휴대폰 등 한국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한류가 단순한 문화상품의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모교 재능을 받아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 교수에게 재정지원을 하거나 승진 또는 청년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안도 마련했다.

모교는 또 재수강제에 대해 사실상 배타적 제한이 없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일정 학점 이하이게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거나, 성적표 상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모교 관계자는 "재수강 때 학업을 소홀히 한 학생을 유독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높이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물관·미술관 후원의 밤 성황

부대행사로 '앙드레 김 패션쇼' 열려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8월 25일 관악캠퍼스 박물관에서 '박물관·미술관 후원의 밤'을 열고 미술관 건물들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밤회는 이날 5백만원을 후원했다.

모교 미술관 건립 계획은 당초 1995년 발의됐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삼성문화재단이 건물을 건축해 모교에 기부기로 결정함으로써 작년 4월 착공돼 최근 준공됐다.

미술관 개관은 '새집 증후군'이 소장품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 봄에 이월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MBC 아나운서 김지연(독어교육원·92)등이 시화를 맡았으며, 박물관·미술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李善成 前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외교관 1백명 문을 해내고 있는 앙드레 김 디자이너께서 이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파견까지 마련해주셔서 모교가 새로 준공된 미술관을 문화와 예술의 전당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만민에서 본회 林光

洙희장은 "새 것은 옛 것에 감춰져 있고, 옛 것은 새 것 속에 있다"는 말처럼 박물관의 오랜 전통과 미술관의 현대적 감성이 한데 어우러져 각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세계적인 우리들의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바리마지 않는다"고 건배사를 했다.

후원의 밤 부대행사로 열린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패션쇼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교 의류학과를 졸업한 김태희 등문과 연예인 김민재 씨가 모델로 함께 나와 미힐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탕 등의 작품이 프린트된 의상 등 미술관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였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설계한 미술관은 연면적 1천3백57평에 지상 3층·지하 3층으로, 지상 1·2·3층에는 각각 강당, 다목적 강의실, 전시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미디어 갤러리가 들어서며 지하 2층은 미술도서관 자료실 및 한문·한글 장서를 갖춘 작품 수장고로 사용된다.

현재 소장품으로는 미술관의 전신인 모교 박물관 현대미술부가

수집한 국내 작가 작품 2백여 점이 있다.

후원행사에는 본회 林光洙 회장, 孫一振 상임부회장, 許士奎 총장을 비롯해 李善成 前국무총리, 모교 鄭雲龍 총장, 李鍾九 총장, 李鍾祥 명예교수, 金永那 물리장, 金炳奎 미술관장, 洪鍾圭 가정회장, 앙드레 김, 삼성문화재단 관계자, 각국 주한 외교인사 등 각계 각층의 문화예술행가 4백여 명이 참석했다.

노키아 CEO 아들 유학 "이동통신 강국 배워라"

세계 최대 휴대전화 메이커인 노키아(Nokia)의 차기 최고경영자(CEO)의 아들이 이달 중 모교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유학을 온다.

모교는 지난 8월 17일 올리 펙카 칼라스부오(Olli-Pekka Kallasvuo) 차기 노키아 CEO의 아들 주시 타파니 칼라스부오(Jussi Tapani Kallasvuo)씨가 올 2학기 모교 경영대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교 경영대와 헬싱키 경제경영학대(Helsinki School of Economics) 사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칼라스부오 씨는 대학원생으로서 한 학기 동안 모교에서 수업받을 계획이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칼라스부오 씨의 아버지가 "세계적인 이동통신 강국인 한국의 IT를 직접 접하리라"며 유학을 조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칼라스부오 씨의 아버지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총괄수석부장이며 이사의회의 결의에 따라 내년 6월 사장 겸 CEO로 취임할 예정이다.

(후)



모교 병원

뇌기능 영상시대 열려

모교 병원(원장 成哲)은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연경캠퍼스 시계탑회의실에서 MEG(magnetoencephalography, 뇌지도)센터 개소식을 갖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첨단 의료장비 MEG를 이용한 뇌기능 영상시대를 열었다.

이날 MEG센터 개소식은 成哲원장장 교직원 30여 명과 세계적 뇌과학자도 일관된 趙秉烈박사, 신경외과 崔秉烈교수, 재조사(인) 韓慶의 스테판도 일본 지사장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경과보고 후 센터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내부를 참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센터의 조직은 신경외과 鄭天基교수와 의공학과, 신경과 전

문의, 뇌과사각각 1명씩 구성돼 있다. 또 뇌지도 검사실과 팀의심, 세발심, 기개심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 들어온 핀란드의 엘렉타 뉴로맥(Elektta Neuron)사의 MEG는 뇌종양 등 각종 뇌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 전에 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자극에 대해 뇌가 어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MEG는 뇌수술시 감각, 운동, 청각, 시각 피질의 뇌 기능을 미리 사용해 뇌수술을 한 치원 발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뇌전환자의 경우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 수술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장비의 가격은 20억원 상당으로 검사비용은 50만원~3백만원이며, 사전예약까지 포함해 한 명 검사에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



‘의생명공학연구동’ 착공

난치병 규명 등에 큰 역할 기대

모교 수의학과 黃錫錫교수를 중심으로 국내외 의학·생명과학 연구팀이 사용하게 될 최첨단 연구시설이 착공했다.

모교는 지난 8월 12일 오전 11시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黃錫錫석좌교수를 비롯한 교내외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생명공학연구동’ 기공식을 가졌다.



의생명공학연구동 조감도

기술계를 놀라게 한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사상 최초로 개의 복제를 통해 인간의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 놓는 개가를 올렸다고 말하고 “黃교수의 연구가 하루 속히 완성되어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

기를 바라며서 축하와 격려를 드린다”며 건배 제의를 했다.

일명 ‘黃錫錫연구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연구동은 과학기술부가 연구시설비 전액(2백50여 억 원)을 출연해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연구실협용 열장류 시설과 줄기세포 연구 시설, 동물복제 및 세포이식 실험실, 분자생물학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연면적 3천3백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전담팀을 구성해 黃교수팀 연구실적의 외부 유출을 막고, 최첨단 보안시스템도 설치된다.

이 연구동에는 또 黃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세계 유수 연구기관의 서울사무소도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에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피츠버그 의대의 제럴드 세튼 교수팀과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이인 윌버트 박사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李育女(鄭東漢)부회장, 許臨사무총장, 鄭英鎭(李)대동장 회장을 비롯해 내빈으로 李海瓚 국무총리, 李明博서울시장, 과학기술부 崔石植차관, 金在哲한국무역협회장, 李佐平(이)사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宋仁(송)사장, KT 南重秀(남)사장 등 국내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참석, 黃錫錫석좌교수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모교와 김일성대학 학술교류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모교 鄭重鎭총장과 김일성대 신자립 총장은 지난 8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8·15 민족대단결 참가자 환송 만찬회에서 만나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는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鄭총장을 포함한 실무진의 방북 또는 김일

김일성대와 ‘학술교류’ “자연과학 중심으로”

성대 총장단의 모교 방북이 이뤄질 예정이다.

鄭총장은 “서울대는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김일성대는 역사 등 인문학 분야의 양교 교수진 방문강의를 먼저 하자는 제의했다”며 “어느 학문 분야를 먼저 교류하느냐보다는 서로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許昌雲교수 등 20명 정년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鄭重鎭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교수 정년식이 열렸다.

이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許昌雲(국어문학)교수, 尹以欽(종교학)교수, 洪元鼎(경제학)교수, 秋光水(언론정보학)교수,

鄭海文(생명과학)교수, 朴貞浩(간호학)교수, 尹錫喆(경영학)교수, 鄭希錫(산림과학)교수, 全在根(농생명공학)교수, 朴孝根(식물생리과학)교수, 許勝一(역사교육)교수, 鄭世力(국민윤리교육)교수, 張相浩(교육학)교수, 韓弘秉(수의학)교수, 金博光(약학)교수, 徐友錫(작곡)교수, 崔國顯(의학)교수, 金義經(의학)교수, 李弘根(환경보건학)교수, 林成森(치의학)교수.

약대 李承基학장



지난 7월 26일 약학대학 학장에 약학과 李承基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李학장은 65년 모교 약대 약학과에 입학, 72년 졸업한 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대한약학회 부회장, 모교 약대 부학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농생대 李鎔濟학장



지난 7월 27일 농생명과학대학 학장에 신림과대학 李鎔濟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李학장은 70년 모교 농대 임산가공학과에 입학, 74년 졸업한 후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7년 모교에 부임, 한국목재과학회 감사, 모교 농생대 기획실장,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李)

동정

수상

▲**李柱演**(역사교과53-57 대한민
국 공무원연인
협회장·시인) =
최근 21세기 한
국문학인협회가
수여하는 제3회
21세기 한국문
화인대상 수상.

▲**卞柱山**(영어교육59-64 前세계
검스카우트연맹
아태지역 의장·
대림 성 모병원
행정원장·한국
아동단체협의회
장·분회 부회
장)=지난 8월 16~19일 말레이
시아에서 열린 제1차 세계검스카
우트 아태지역 지원재단 총회에서
연맹 최고행정인 'WAGGGS 브론
즈메달' 수훈.

▲**李奎權**(경제63-68 이주대 교
수)=지난 7월 12일 서울 애경미
니아센터 강당에서 제23회 정간기
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
부문) 수상.

▲**黃馬錫**(수의학72-77 모교 수의
학과 석좌교수)=
지난 8월 20
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더컨터
넬담 호텔에서
한국이미지커뮤
니케이션연구원이 수여하는 '한국
이미지 알리기 디딤돌상' 수상.

▲**金數亨**(사법학83-87 모교 법학
부 교수)=지난 8월 26일 서울 한
국언론재단 외신기자클럽에서 한
국언론문화회가 수여하는 제4회
철우언론대상(최우수 논문부문)
수상.

인사

▲**崔奎完**(의학55-61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前삼
성의료원장)=
지난 8월 1일
건국대 병원 의
료원장에 선임.

▲**韓英煥**(정치56-60 前한국광
학회장·중앙대 명예교수)=지난 9
월 2일 인기 2년의 동남보건대 제
12대 학장에 취임.

▲**金炳興**(정치57-61 문화과지성
사 상임고문)=
지난 8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
원회(옛 문예진
흥원) 초대 위원
장에 취임.

▲**李存熙**(역사교과57-63 前서울
역사박물관·
서울시립대 명
예교수)=지난
7월 1일 서울특
별시 시사면천위
원회 위원장에
취임.

▲**李昌弘**(의학60-66 前대한간
학회·간과 교
수)=지난 8월
1일 건국대 의
무부총장에 선
임.

▲**金英南**(토목63-70 前해양수산
부 차관)=지난
7월 28일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
주총회에서 사장
에 선임.

▲**宋奎堂**(경제63-67 이주대 교
수)=지난 8월 19일 대통령 자문
기구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위

원장에 임명.
▲**李敦求**(입학65-69 모교 산림과
학부 교수)=지
난 8월 8~13일
호주브리즈번에
서 열린 제22차
국제산림연구가
관련 합회(IU-
FRO) 세계총회에서 한국인 최초
토 치기 회장에 선임.

▲**孟萬求**(법학65-69 前대정경제
원 차관)=지난
8월 24일 서울
시장개발연구원
제9대 원장에
선임.

▲**柳明恒**(행정66-70 주필리핀 대
사)=지난 7월 27일 새로 신설된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임명.

▲**陳棟求**(법학67-71 前경외대 금
융비서관·재정
경제부 국제업무
정책관)=지난
7월 27일 조만
창정에 임명.

▲**權泰信**(경제68-72 청와대 경제
정책비서관)=
지난 7월 27일
새로 신설된 재
정부 제2차관에
임명.

▲**尹大熙**(경영69-73 재경부 정책
홍보관리실장)=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에 임명.

▲**金智英**(식품영양69-73 경희대
교수)=지난 7
월 1일 경희대
생명과학대학
장 겸 생명과학
부장에 선임.

▲**李秉基**(전자공학70-74 모교 전
기컴퓨터공학부
교수)=최근 한
국인 최초로 세
계 최대 권위학
술조직인 IEEE
(세계전자전자

학회) 통신학회 부회장에 선임.
▲**安圭重**(의학72-78 前대한외부
과학회 상임이
사·건국대 교
수)=지난 8월
1일 건국대 병
원장에 선임.

▲**李京榮**(의학73-82 건국대 교
수·세계위암학
회 정회원)=지
난 8월 1일 건
국대 의학전문대
학원 원장에 선
임.

▲**趙潔英**(간호81출·보대원81-83
강남대 교수)=
지난 8월 1일
강남대 사회복지
대학원장에 선임
돼 노인보전 및
실버산업 경영을
특성화함.

▲**成武成**(의학76-82 건국대 교
수)=지난 8월
1일 건국대 병
원 진료부원장
겸 기획관리실장
에 선임.

▲**朴秉永**(의학80-86 前단국대 교
수·건국대 교
수)=지난 8월
1일 건국대 병
원 교육연구부장
에 선임.

▲**姜大熙**(의학81-87 모교 예방의
학교실 교수)=
지난 8월 24일
미국 암연구학
회(AACR)에서
발행하는 저널
'암·약·학생·의학
지표 및 예방(CEBP)' 편집위원에
추천.

▲**鄭東煥**(AMP 26기 대동협업 회
장·제4회 대동
상명학회 조직위
원장·민족문화
영상학회장)=
최근 8번째장경
동관간행 법공진
원장에 선임.

▲**薛勇朱**(ACAD 53기 前세계일본
사상·중앙노동
경제연구원 회
장)=지난 7월
27일 통사문화
발 대표의원에서
통일부 통일교육
위원 서울시협의회에 취임.

▲**安亨一**(상학47-50 모교 성악과
명예교수·테너)
=지난 9월 3일
서울 예술의 전
당에서 토스트,
도나우더, 푸치
니 등의 작품으
로 '노래인생 55
번서트'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
장·가천결핵단
회장·분회 부회
장)=지난 7월
16일 인천 가천
의대 김병원 등
금의료원터 가천
홀에서 '21세기
산부인과 새로운
영역의 치료 신포
지' 개최.

▲**尹鎰重**(정치53-57 한국언론인
포럼 회장)=지
난 7월 13일 한
국언론재단에서
상신여대 金敏浩
(외교78-82) 교
수를 초청 '한미
관계 현황과 북핵
문제의 전망'이
란 주제로 포럼
개최.

▲**李相馬**(행정57-61 한림대 총
장·분회 부회장)=
지난 8월 22일

▲**李相馬**(행정57-61 한림대 총
장·분회 부회장)=
지난 8월 22일

한림대 고령사회교육센터에서 세
계적 학술단체인 뉴욕과학아카데
미 엘리스 루빈스타인 회장에게
명예 문학 박사학위 수여.

▲張清宇(응용미술56 62 성신여
대 명예교수·한
국종이접기협회
장)=지난 7월
21~2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하얏트리젠시호



과 교수) = 지난
8월 2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C룸에서 정년기
념으로 모교 간
호대학이 송공연

개최.
▲李秉錫(회화58입) 서울 은평마



문예진흥원·서울
 미협 시야화분과
 위원장) = 지난
 8월 12~16일
 일본 요코하마시
 립미술관에서
 '마음이 머무는 곳' 연작으로 전시
 회 개최.

▲원장(생물교육58-6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지난 8월 11일 서울 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교육'이란 주제로 과학교육자 종합학술회의 개최.

시아프콕가연맹 대회 및 음악제 개최.

▲**李鍾協**(기악62-66 중앙대 교수·협스트링앙상블 음악감독)=지난 9월 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스아일랜드에서 바이올리니스트 **李玟熙**(기악90-94 현대앙상블 Eclat 멤버)·동문 등과 함께 협스트링앙

싱글 22회 정기연주회 개최.
▲姜 孝(기악63임 세종솔로이스츠 음악감독)=지난 8월 3~19일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예술감독을 맡아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曹喜英**(회화64-68 그로리치화
람 대표)=지난 8월 20일부터 9
월 10일까지 서울 평창동 그로리
치화랑에서 雲甫 金基昶·雨鄉 朴
喆賢·千鏡子화백의 작품으로 개관
30주년 기념전 개최.

▲徐東福(응용미술66-70 전국대교수)=지난 8월 17~23일 서울 관훈동 통일회관에서 도예전 개최.

▲ **강희주** (법학66-70 모교 법학부 교수)=최근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를 비교 분석한 최초의 영문 학술서 'Law and Justice in Korea : South and North' 출간.

▲**김민수**(정치69-73 KBS 이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본보 논설위원)= 지난 8월 3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

청년드림팀 단장 자격으로 '장애 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발대식 개최.

▲李衡街(기약66-74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지난 8월 27

일 서울 예술의 전당 야외에서 尹
旺老(기악82-86)·李丙俊(기악
86-92)·崔丁必(기악88-92)·金男
洙(기악89-97)·尹奎奎(기악90-
98)·高鳳京(기악94-98)·우광희
(기악95-04)등문 등 트럼펫 전공
자들로 구성된 '서울 트럼펫 앙상
블' 연주회 개최.

▲玄在喜(기악72-76 세종대 교수)=지난 8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서울교대 康寶英(기악72-76) 교수와

함께 '이국적 춤곡과 재즈'를 주제로 파야노 두오 리사이클 개최.
▲金東煥(신대원 72·75 한국광교
 주협회 상근부
 회장·중앙대 겸
 임 교수) = 지난
 8월 25일 성균
 관대에서 '사회

평판의 관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학위 받음.

▲**李瑞柱**(회화) 76·80 경희대 겸임
교수·삼심아트
대표·한국미협
부이사장)은 지
난 8월 24~30
일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
서 '생명의 공명'이란 주제로 전시
회 개최.

▲金廷坤(건축77-81 건국대 교수)=지난 7월 28일 서울시가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건립을 위해 국 재건축가협

▲**褒重亮**(무기재료85-89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8월 24~25일 대전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공동강의실에서 연료
전지관련 기반기술을 주제로 산학
협동 공개강좌 개최.

▲辛秀卿(기악80-84 전남대 교
수·피아니스트)
=지난 6월 23
일부터 30일까
지 독일 뒤셀도
르프, 쾰른키리
히에 라이프치히

등지에서 쇼팽, 베토벤, 프로코피
에프 등의 작품으로 순회 독주회
개최

▲**文熙翁**(작곡 85~89 모교 작곡과 교사)=지난 9월 12일 서울 여의도 영인아트홀에서 **朴俊珠**(작곡 86~90 모교 교사)·**金煥珠**(작곡 88~92 전국대 교수)·**張孝豪**(작곡 88~9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鄭承宰**(작곡 88~94 상명대 교수)·**劉一翰**(작곡 89~95 모교 교사)등 문과 함께 작곡동인知音 제5회 정기발표회 개최

▶ 문제풀이

의대 金鎭福 명예교수 별세



지난 8월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1933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66년부터 모교 의대 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 뒤에는 인재대 서울백병원 위암센터 원장, 백중암의료원 명예의료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呉鍾泰**(AMP 45기 前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장)=최근 중국에서 중국주세무사협회(회장 이영귀) 초청을 받아 '한·중 양국의 세무시제도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화 축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
을 밟힐 동분)

*김 철(원예학88-95)·정미선
씨=9월 25일 12시 30분.

*권영관(화학공학94-98)·김민경 씨=9월 25일 14시.

*김성두(경영94-01)·양운이
씨=10월 1일 14시.

*박재우(의학03졸)·박지영(의학03졸)씨=10월 3일 14시.

*오상윤(경제97-02)·김 숙 씨
=10월 8일 14시.

음대동창회 韓相宇회장 별세



장암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7세.

韓희장은 1938년 충북 제천 출생으로 모교 졸업 후 무학여중·경기중 교사, 문화방송 제작위원, 서울에고 음악과장 등을 지냈다.

또 80년대 후반부터 음악평론가로서 본격 활동하며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예술의 전당 이사, KBS교향악단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이사, 국립극장 운영심의위원, 국립합창단 이사, 광화문 문화포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세계의 해외동문 金容燮 (在漢) 세계평화운동재단 대표

호주서 합기도 가르치며 한국문화 전파 기금 모아 환경단체·박물관·대학 등 지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해외에서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운 우리나라 무술 등 고유의 문화와 철학정신을 이웃 호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지난 8월 11일 호주 말베른 그랜드호텔에서 金容燮(학봉58-63)동문(사진)이 설립한 세계평화운동재단(UNiversal Peace Movement & Charity Foundation)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2002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 여자 영커로 활약했던 Jennifer Hansen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趙南勳한국대사, 孫一根경원대 초빙교수, 金炳午 前국회의원, 千在弘북한대사, 李在弘비토리아주 한인회장, 李在弘유엔뉴스 발행인을 비롯해 John Cobb호주연방정부 시인·다문화 장관, Michael Danby호주연방의원 의원, Steve Bracks비토리아 주지사, Mark Hig-



nbotham몰로랜드 시장, Naftali Tamir 이스라엘 대사 등 4백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977년부터 합기도·한기도·선도 도장을 운영해온 金容燮동문은墨尔本지부동장회장, 비토리아주 한인회장 등을 역임하며 제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던 중 우리나라의 건국기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평화와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한다.

“호주, 한국 등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세계평화운동재단 10주년 기념행사



좌로부터 孫一根상임부회장·John Cobb장관·趙南勳한국대사·金容燮동문·千在弘북한대사·金炳午 前의원

기관을 찾아가 저희 재단에서 개최한 후원의 밤 행사 및 세미나에서 모금된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닐지만 그동안 내뱉재단, 임치표·연구재단, 심장센터, 아동교육을 위한 농장학교, 각종 환경단체 등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분들과 단체를 많이 발굴해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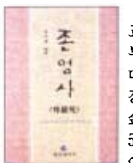
를 나타내며, 부인 Wendy여사와 자선에 찬 뜻을 지녔다.

이년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모금된 기금 역시 호주의 ‘어린이를 위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ScienceWorks 박물관과 영기문제로 화폐폐쇄되고 있는 호주중앙은행 살리기 위해 연구하는 대학에 전

신간

존엄사(尊嚴死)

—金建烈 지음



경험과 ‘노년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스러운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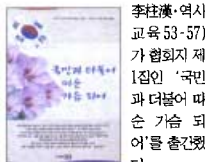
金동문은 ‘인간의 죽음은 존엄과 신중성을 갖춘 단순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의미의 존엄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초라하게 하는 인과사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존엄사’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하고, 선진 외국의 풍부한 사례와 최근 국내의 사례까지 소개하여 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최신의학사시판·값20,000원)

국민과 더불어 따뜻 가슴 되어

—대한민국공무원문인협회

대한민국 공무원문인협회의(회장



李柱漢·역사 교육 53-57)가 협회지 제1집인 ‘국민과 더불어 따스 가슴 되어’를 출간했다.

한국의 선거와 한국인의 정치행태

—安秉萬 지음



한국외국어대 安秉萬(학봉60-64)총장이 한국 선거와 투표 행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담은 책을 펴냈다.

제1부는 1990년 이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선거와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결과들로 구성됐다.

제2부에서는 행위자로서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수록했다.

제3부에서는 구조적 맥락에서 정치, 행정 문화의 특징을 부각시

켰다. 즉, 민주주의와 정치, 행정 문화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인간사시판·값35,000원)

綠纛이千萬赫그들 (Le Saule aux dix mille rameaux)

—安玉聖 著



프랑스 파리 국립아시아 미술 기예 박물관 연구원, 국립문화 언어문화대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미

술사 건축사학과 연구자로 활동 중인 安玉聖(학봉67-72)동문이 프랑스에서 한국 古美術(韓古美術)을 엮은 책을 처음으로 펴냈다.

“미술과 시화”(한문·서), ‘시대의 순례자’(한문·서) 등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바 있는 安동문이 7년간의 고전문화 연구를 통해 출간하게 된 이 책에는 차용화, 청산백곡, 가사리, 광동백곡, 사마인곡, 농가월령가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가, 시조, 가사, 한시, 露詩 1백45권이 담겨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과 함께 독음을 넣었으며, 프랑스어 번역본과 자리에 대한 소개, 용어에 대한 자세한 주석을 달아 놓았다. (L’Espresso / Langues & Mondes刊·값30€)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沈良燮 지음



유쾌한 글쓰기 커뮤니티 ‘송안송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沈良燮(동양사학 80-87)속령여대 강사)동문이 쓴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에 관한 종합보고서이다. 이 책에서는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세계의 반미주의 속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파악했다. 그리고 주변국인 칠수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민족주의, 반세계화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반미 논리와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반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한미공동체 대안들의 현실성과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공동체가 나아가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刊·값5,000원)

커뮤니케이션 프랑스어 —金眞秀 著

서경대 유럽어학부 金眞秀(대학원83-85)교수가 프랑스어 인종차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랑스어

총정리편을 펴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제1부 ‘문법과 패턴정리’에서는 시제와 관련 사항과 독해와 작문을 위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조건법과 접속법의 형태와 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제2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에 대한 소개, 인적 사항의 표현, 엮어 쓰기,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운 글쓰기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지사시판·값15,000원)

공연

金正圭·李淑美 피아노 듀오연주회 —9월 30일 예술의 전당

모교 기악과 金正圭(기악56-60)명지대 객원교수)명예교수와 제자 李淑美(기악84-88)명지대 강사)동문이 함께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갖는다. (공연 문의: 피아노포럼 497-1973)

동문 기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민주평화전락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진영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치즘(Nazism)과 파시즘(Fascism)이라는 전체주의를 물리쳤고 전후 냉전 하에서는 소련이 이끈 볼셰비즘(Bolshevism)이라는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제제와의 싸움에서도 그들 스스로의 봉괴로 승리를 거둬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인류의 지지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더욱이 아시아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마저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계기로 정치적으로도 자유화 물결이 일어 중국공산당 규약에서도 '부르주아지(유산계급)'를 탈원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 역시 폭정의 종식을 재창조하고 나서고 있고, 십대적 우월권을 인정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류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 이상 민주화 결말은 더욱 확산돼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배경, 기본원칙, 그리고 이를 위한 패권적 지도력을 차례로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믿음은 어느 자유주의 국가보다도 철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미국의 원위는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인류보편 사회를 만드는 일은 마땅히 미국이 해야 할 선조자적 사명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단일평화체제가 이룩된다면 과학기술과 사회관리능력 등 국력요소를 갖추고 또한 막강한 군사력과 월등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다양한 문화와 이질적 인간집단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져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데일리'도 물리칠 수 있는 평화집사, 다시 말해서 민주평화(Democratic Peace)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전략의 기본원칙은 첫째로 미국, 유럽, 일본을 잇는 '컨소시엄' 형성, 즉 공동관리체제 구축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유럽에는 아프리카 등 舊식민지역을 달고 돌아 아시아지역은 일본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미국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 등을 하는 분업체제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개입과 확대정책(Polic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이다. 이 원칙은 한반도로 말해서 21세기 세계를 하나의 질서 속에 편입시켜 관리하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개척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세계를 범세계적 단일시장경제체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중국의 경제화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로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두고 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세계질서형성에 부정적 입장이다.

중국은 나라의 규모에 있어서나 중국식

제사회의 동의(consent)와 순응(compliance)을 이끌어 내는 지혜로운 전략적 지도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패권적 권력행사에는 일부 과의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반미의 장벽이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미국적 표준을 보편적 세계표준으로 삼고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라는지, 자유시장경제의 증진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이 자국기업이익을 위해 국제통화기구,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을 운영해온 사실 등은 모두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을 손상시키는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패권력을 가진 미국은 그들의 원대한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패권국에 걸맞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안정을 하기 위해 일련의 규범과 원칙, 규칙 등을 마련하고 그 유자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고 이 같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패권적 지도력은 확보될 것이며, 미국의 세계민주평화실현의 전략적 목표 또한 순탄하게 달성되리라 예상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유화 물결은 부시 대통령의 '폭정의 종식' 선언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아시아를 비롯해 '이집트' '방글라데시' '쿠바' 등에게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장기 독재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저항으로 도미노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金鍾遠

(법학52-56)

북한연구소 이사

김포지부총무회장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정치적 사회주의고구수, 경제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위리 수용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인류공존체 계획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역할을 대체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제사회에 있어서 패권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데는 이혼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하면 이 같은 패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단일 민주주의공존체 실현을 위해서는 국

村夫의 夢寐 夢想

심심찮게 촌 백성들의 시위가 일고 있음을 TV로 보게 된다. 물론 박근호 씨(가)라기보다는 더 절박한 생존권의 물물이다. 이들의 처절함을 지켜보면서는 침묵하는 위정자들의 생각은 뭔가? 선거 표밭의 수확량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 그들에게 진정 사랑과 아픔을 나눌 지혜가 없는 걸까?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걸까?

방대한 나라살림을 하는데 정도가 따로 없음이다. 4천만 인구의 口腹과 心臍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음이며, 소수의 농업보다 다수의 경제를 생각하며 감내해야 하는 것을 넘어야 하는 삼정 모르지는 않지만 말이다. 우리가 해마다 국가에 헌납하는 세금 중 농민의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그 많은 돈은 정말 얼마나 일할까? 또 그 중 어느 만큼이 그들 표밭에 뿌릴 비료로 경매되며, 어느 만큼이 지역적 배당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흘러갈까? 요즘 몸지라가 뒤숭숭하다.

15-16년 전쯤인가 보다. 신문에서 그 국무총리의 짧막한 글(일일-월저정신)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무렵이 아마 수확호황에 무역특자를 떠들며대며 한국은행 금고의 넉넉함을 얘기하면서, 일일은 따라잡는 한과목 학기술이 앞으로 10년이면 폭하다는 언론의 가벼운 인습이 열 올릴 때

시거였던 것 같다. 그때의 '10년'에 대한 총리의 일침이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의 '절저정신', 총실한 '정인정신', 멀리 내다보는 '기획력' 등등. 우리의 범국민적 열광이다. 열 받은 양은그릇 같은 감성만으로 과연 일꾼을 극복할 수 있을까 했던 기억도 새삼스럽다.

열등의식(?)도 아니고 일본을 예찬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민초의 아픔을 위해서라도 한바탕 하자.

우리나 그들이나 식초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다. 인구는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은데, 식초제조회사는 무려 3백여 개는 9백 80여 개였다(1970년 경 통계). 물론 거의가 영세 내지 개업공업이라. 식초양조에 관한 논문은 어떨까? 한국에서 통용하다시피 생산 판매하는 소위 메이커(maker)의 식초양조에 관한 기초연구는 문이,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만, 단 1편이라도 있을까? 아니 기업비밀이므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수백 편은 되리라!

하지만 그대들은 전국 각 縣(우리의 道) 농업기술연구원 등 이곳저곳에서의 논문이 심심찮게 발표되고 있음에 참 놀라웠다. 조그마한 기업들이 그러한 지역적 기술개발 자료와 경험적 장안정신으로 빛은 양초식물론, 당연히 지방특성과 가

의 전통성으로 자랑하고 있었다. 참 부러웠다. 한국의 천연물활용인 것에 비하면 한식(?)이 있고 지방색도, 맛도 있었다. 한국의 농촌이나 영세기업의 실패를 위장자늬 누군가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비교 조사해 봐 주었으면 싶다. 민초들의 눈물과 땀 배인 새금을 먹었으면 채만도 잊지 않았다. 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몇몇 대기업의 기술이나 개발특허가 국일할 수 없고 민족경제를, 서민적 생산성을, 부



金朱榮

(농학59-65)

한일종합식품

연구실 이사

부 현상을, 소득분배를 해결할 수 없는 마당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실상을 되돌아보면서 지혜와 슬기를 찾는 것이 위정자들의 일일일...

역시 또 일본 이야기다. 국일하려면 아니, 백성의 진정한 대대로 선출됐다고 자부한다면 귀찮더라도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이 안식품의 빵과 음식만 좋

아니나 썩어 남아들게 뒀다. 문교당국이 각급 학교, 그리고 가정의 학부모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 중 한끼만이라도 일본 전통 음식을 취하도록 간곡히 권장했다고 한다.

농업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어린이의 맛보다 걱정하고, 무엇보다 일본 전통의 비와 일본인의 '혼'을 잊지 않게 살려야 한 다는 내용이었다.

스시(초밥)는 우리네 '김치'처럼 지구촌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한다. 그들 스시가 쌀을 얼마나 소모시켜주며 그들 농촌에 어떤 웃음을 주는지 조사해보면 어떨까? 조족지월이라고 웃고 말 테지! 간편하고 즉석식품으로서 깔끔한 맛과 영양을 줄거라는 현대 셀러리엔의 한끼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수형만가. 뽕까지 나 뽕으로 소모되는 뽕가루 양은 어느 정도일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도 그 같은 소제가 있지 않은가. 주려뽕이나 김밥도 우리 전통 음식일텐데...

위정자 누군가가 농업정책자금에서 한 톨씩 뽕 뽕에 아삼작(?)인 영양학과 조려연구자에게 연구비로 주면 아까울까? 저 녀석들처럼 뽕되지 않고 꾸준히 국가에게(?)로 10년을 투자하면 어떨까? 물론 새 밥의 피만큼 조금의 쌀이 소모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수렵이나 삼배적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지나 말았으면 싶어진다.

夢寐之間 헛소리라 하더라도 민초들의 새금을 먹는 사람은 읽어 주었으면 싶다.

동창회보를 읽고

‘된장마을’에선 음악이 흐르고...

음악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데 정말 좋은 공부이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위해선 집다한 욕구들을 포기해야 했다. 포기하는 훈련이 지금의 간절하고 욕심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 특히 솔로무드인 원장을 만들면서부터는 더욱 그렇다.

원장은 2년을 기다려야 깊은 맛의 원장이 되고, 간장은 3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숙성된 조식간장이 된다. 잡내가 나지 않는 공작은 맛, 음식의 독소를 없애주고 맛을 어우르고 살려주는 군더더기 없는 맛. 그래서 나 역시 기다림을 가지고 서서히 숙성되는 간장처럼 살라 한다.

서울부터 4시간이나 걸리는 강원도 정선, 된장마을이라 불리는 ‘매주와 웰리스트’에 일반이면 수만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오시는 분 모두 스승 아닌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마음에 잔치를 연다. 3천2백80개의 향아리가 사 열하고 있는 율마당에서 7월6일과 8월1일~3일에 음악회를 열고, 오시는 분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원장이 좋아하는 정선대에게 테크닉을 요하는 음악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때 나오는 삶의 향기를 공유한다. 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음악을 나눈다. 그러면서 나는 천연덕스럽게 “제가 이 원장을 팔기 위해서 첼로를 42년간 공부했구요, 독일 유학 중에는 박스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턱배를 써는데는 정이예요. 저는 준비된 원장 장사랍니다.”

자금은 전통식품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 초창기에는 아이들을 업고 원장을 주고, 주문을 받아 턱배를 쓰고, 함께 일하는 마을사람들 받 해주고 1인 다역을 했다. 그러나 13년

전 고생을 하던 시절이 가장 풍요롭게 느껴진다. 60인분을 하루에 5개를 하면서도 끝까지 재미있어 했다. 부엌이 없어 툇잡이 식탁을 만들고 장작불에 밥을 했다. 설거지는 사넛물에 이고 가서 모래 한 줌, 풀 몇 포기 뜯어 그릇을 씻고,



都完女

(기약73-77)

매주와 웰리스트 대표

광주리에 그릇을 담고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흔들면 설거지 끝.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워 한다. 그러던 친구들에게 “사넛물을 개수대로 가진 사람 나와보라고 해”하며 끝까지 거린다.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뜨고 피가 맺히고 손등이 갈라졌어도 첼로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손등이 얼룩덜룩 가축처럼 되어 있어도 한오백년 한 자락에 청중이 모두 울기도 한다. 어느 분은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적신다. 나는 또 웃으면서 “세상에 손 큰 웰리스트는 저밖에 없잖아요, 꺾꺾꺾.”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 인생은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

총동창회 바둑대회가 준 기쁨

혁신과 선도를 부르짖어야만 하는 IT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에서인지, 항상 비뚤은 일상을 지내는 필자에게 비교적 有閑한 취미가 있다. 물론 등산을 한 다든지, 업무상 골프를 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절친질로 배운 바둑은 무

파지던 거의 필자의 부친 나이와 비슷한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갖 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배들, 바둑에 흥미를 둔 재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동문들이 함께 모여 바둑도 두고 수컷도 나누고, 학교 교장에서 도시락도 나눠 먹고, 그동안 삼아온 얘기들을 나눴다.

올해 대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일반 B조에서 윤 종재 3위에 입상해 작은 기쁨을 누렸지만, 이보다 기뻐던 것은 세대를 뛰어넘어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우리사회는 세대를 이어주는 교류의場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 서로에 대한 공유치나 대화가 부재하다 보면 어떠한 좋은 의견이나 생각도 반 영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뛰어난 경험과 경륜을 지닌 선배님들의 지혜를 후배세대에게 전달하고, 신세대의 생각과 행동양식에 대한 포용과 이해는 교육기관이나 조직내부를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은 지원서나 신청서의 취미 생활란에 ‘췌미=바둑’으로 기입이 되곤 한다. 사실 바둑은 비애호가들이 생각하듯이 靜의이고, 고리타분한 놀이리보다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치열하고 動의인 스포츠이다. 앉아서 꼼꼼히 바둑판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못다 한 치열한 경쟁과 승부를 바둑을 통해 代理戰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작년 제1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가 이어 지난 6월 15일 제2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는데, 필자는 선배님의 권유로 이 대회에 두 번 모두 참가를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많은 동문 선후배들과 친해질 기회를 갖게 됐다. 나이로

이러한 취지에서 총동창회에서 주최한 바둑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모교를 엮는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장은 서울대를 하나로 묶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창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자이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모교의 구성원간 화합과 실질적인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둑대회 뿐만 아니라 동문 상호간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 경험의 공유는 동문간 상호교류의 장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시대의 세대를 엮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金 昊 炫

(경대원98-00)

한국메트로맥스 대표

△한도선[△] △한정석[△] △한 변[△]
△허수현[△] △현영석[△] △홍승배[△]
△홍안하[△] △홍원표[△] △홍중우[△]
△홍철남[△] △황정연[△]

◆**농대** △고상현[△] △김갑남[△]
△김근우[△] △김기철[△] △김기철[△]
△김동원[△] △김단수[△] △김명배[△]
△김삼남[△] △김용득[△] △김재원[△]
△김정규[△] △김종근[△] △김종원[△]
△김주목[△] △김주철[△] △김주하[△]
△김준호[△] △김태호[△] △김희기[△]
△김정규[△] △김종근[△] △김종원[△]
△류배강[△] △민원동[△] △민태혁[△]
△박상민[△] △박상준[△] △박수규[△]
△박승준[△] △박승호[△] △박시우[△]
△박찬우[△] △박용진[△] △박재현[△]
△박정환[△] △박종화[△] △박종욱[△]
△박희규[△] △방수지[△] △배정길[△]
△배종진[△] △백병현[△] △백용승[△]
△백종현[△] △서광선[△] △서성원[△]
△성남원[△] △송기형[△] △송사일[△]
△신상철[△] △신성기[△] △신승욱[△]

△신일선[△] △신재안[△] △심경보[△]
△안승호[△] △열익환[△] △유병서[△]
△유정철[△] △윤수철[△] △윤여승[△]
△이재은[△] △이교은[△] △이관선[△]
△이광호[△] △이광희[△] △이규영[△]
△이남인[△] △이두철[△] △이명남[△]
△이무영[△] △이병철[△] △이병철[△]
△이영림[△] △이은재[△] △이은종[△]
△이지원[△] △이종철[△] △이정훈[△]
△이철환[△] △이태구[△] △이학우[△]
△이현득[△] △이형우[△] △이홍석[△]
△이희석[△] △이희영[△] △인지중[△]
△장유인[△] △전제상[△] △정민현[△]
△장병기[△] △정영석[△] △정정민[△]
△조광진[△] △조석경[△] △채병희[△]
△최연홍[△] △최재혁[△] △최찬우[△]
△최대환[△] △최병준[△] △하인환[△]
△한태봉[△] △현정순[△] △홍성민[△]
△홍성하[△] △홍영기[△] △홍정서[△]
△황재순[△]

◆**문과대** △강신성[△] △강영남[△]
△고석진[△] △고인식[△] △공상현[△]
△권방운[△] △권오규[△] △기우택[△]
△김경하[△] △김내성[△] △김덕룡[△]
△김재태[△] △김영기[△] △김성태[△]

△김영기[△] △김영기[△] △김용직[△]
△김용훈[△] △김인식[△] △김재봉[△]
△김종업[△] △김철중[△] △김태동[△]
△남기민[△] △노성진[△] △박남훈[△]
△박명원[△] △박영배[△] △박창남[△]
△박혜린[△] △사기립[△] △사병국[△]
△서종호[△] △서한창[△] △손정규[△]
△손정웅[△] △송갑상[△] △신규철[△]
△신동근[△] △신태현[△] △심양홍[△]
△안승원[△] △오근태[△] △오근영[△]
△오백주[△] △오인환[△] △우성식[△]
△유광준[△] △유민수[△] △윤규호[△]
△윤용식[△] △이계원[△] △이국진[△]
△이만우[△] △이성희[△] △이윤오[△]
△이정호[△] △이로원[△] △이정성[△]
△전부환[△] △전순규[△] △정기호[△]
△조동현[△] △조성술[△] △조용선[△]
△차상철[△] △차요인[△] △최 국[△]
△최진수[△] △최관식[△] △최상규[△]
△최선규[△] △최성철[△] △최원우[△]
△최임수[△] △최정숙[△] △최우홍[△]
△황호근[△]

◆**미대** △김태성[△] △권기운[△]
△권미경[△] △권영숙[△] △권정철[△]
△김옥주[△] △김진성[△] △남 철[△]
△문 천[△] △박원주[△] △성남인[△]
△송정숙[△] △유광수[△] △윤형삼[△]
△이영애[△] △이정선[△] △이종목[△]
△이준환[△] △장윤우[△] △최숙경[△]
△합지승[△]

◆**법대** △강신경[△] △고명윤[△]
△고희상[△] △박문직[△] △권기대[△]
△권방우[△] △금경환[△] △금주석[△]
△김기영[△] △김대중[△] △김문곤[△]
△김병룡[△] △김상연[△] △김성수[△]
△김성수[△] △김수일[△] △김용덕[△]
△김용배[△] △김용재[△] △김준경[△]
△김정철[△] △김주영[△] △김지욱[△]
△김창기[△] △김준호[△] △김태영[△]
△김하늘[△] △김학수[△] △김현근[△]
△문창성[△] △민성철[△] △박민표[△]
△박용승[△] △박재태[△] △박정호[△]
△박재태[△] △박주범[△] △박진규[△]
△박지우[△] △박지호[△] △박희우[△]
△박철원[△] △박만규[△] △박계문[△]
△백영철[△] △백준현[△] △서 민[△]
△서범수[△] △서경진[△] △손치득[△]

△손해국[△] △송태석[△] △송병[△]
△신박식[△] △신영길[△] △신희대[△]
△심훈중[△] △인병우[△] △인영무[△]
△양기진[△] △임철진[△] △여성원[△]
△오명환[△] △오성준[△] △오치룡[△]
△유민수[△] △유재신[△] △윤덕규[△]
△이광철[△] △이동술[△] △이성기[△]
△이상철[△] △이상준[△] △이상지[△]
△이영삼[△] △이영희[△] △이영희[△]
△이용관[△] △이영희[△] △이윤식[△]
△이진상[△] △이철승[△] △이현구[△]
△이홍길[△] △이희영[△] △이정현[△]
△임승철[△] △임승현[△] △임흥근[△]
△정명관[△] △정서준[△] △정재철[△]
△전상수[△] △전성호[△] △전승호[△]
△전지원[△] △정 문[△] △정영삼[△]
△정정식[△] △정기[△] △조병선[△]
△조봉근[△] △조석래[△] △조용준[△]
△조준용[△] △조준환[△] △차상철[△]
△권대승[△] △최기배[△] △최유덕[△]
△최정호[△] △최준봉[△] △한정권[△]
△홍은영[△] △황희철[△]

◆**사대** △강갑선[△] △강사민[△]
△강현재[△] △권정호[△] △권에상[△]
△권병준[△] △김 인[△] △김경철[△]
△김관섭[△] △김기우[△] △김기준[△]
△김병식[△] △김봉수[△] △김선식[△]
△김영순[△] △김영준[△] △김용구[△]
△김용남[△] △김인욱[△] △김재윤[△]
△김종서[△] △김정철[△] △김정현[△]
△나동진[△] △노병룡[△] △노영석[△]
△노재현[△] △박상희[△] △박경윤[△]
△박병태[△] △박석근[△] △박영서[△]
△박인호[△] △박인호[△] △박희용[△]
△배병일[△] △박정범[△] △봉정모[△]
△성수영[△] △성재경[△] △손나철[△]
△송동수[△] △신기남[△] △심용삼[△]
△양연하[△] △안인환[△] △양재민[△]
△임기환[△] △연대성[△] △우근룡[△]
△원필순[△] △유중재[△] △유한욱[△]
△윤홍중[△] △이강하[△] △이광남[△]
△이길오[△] △이동욱[△] △이민철[△]
△이부용[△] △이상경[△] △이상연[△]
△이석규[△] △이석호[△] △이상진[△]
△이은아[△] △이승택[△] △이양자[△]
△이인화[△] △이재민[△] △이종록[△]
△이준선[△] △이태근[△] △이태훈[△]

△이태준[△] △이한부[△] △임갑선[△]
△임병선[△] △임병철[△] △임찬희[△]
△장 호[△] △장완배[△] △장정현[△]
△전두환[△] △전상철[△] △전진재[△]
△전종철[△] △정갑주[△] △정구조[△]
△정승열[△] △정현식[△] △조각석[△]
△조민식[△] △조상식[△] △조은경[△]
△조정하[△] △차완근[△] △최계숙[△]
△최나준[△] △최두영[△] △최병우[△]
△최은식[△] △최현식[△] △최혜선[△]
△한경수[△] △한상준[△] △한준근[△]
△한오연[△] △황상익[△] △홍득운[△]

◆**상대** △강영남[△] △강재경[△]
△김광득[△] △김방식[△] △김성태[△]
△김성열[△] △김영하[△] △김육윤[△]
△김정현[△] △김종현[△] △김종석[△]
△나준배[△] △남상준[△] △박나순[△]
△박승현[△] △박은진[△] △박인철[△]
△박홍서[△] △배병호[△] △배종삼[△]
△배진규[△] △백은수[△] △북한재[△]
△서서무[△] △설동욱[△] △신용태[△]
△심재식[△] △심형식[△] △양정현[△]
△오진석[△] △우영하[△] △우성준[△]
△이기준[△] △이만선[△] △이규승[△]
△이인용[△] △이준근[△] △이홍준[△]
△임동술[△] △장무환[△] △정학진[△]
△정학진[△] △정창원[△] △전재승[△]
△정상용[△] △정찬인[△] △정하규[△]
△정희경[△] △조용규[△] △주경로[△]
△주찬선[△] △최기종[△] △최영환[△]
△최재혁[△] △최철현[△] △하진오[△]
△홍은태[△] △홍광학[△] △홍상교[△]

◆**병합대** △강영지[△] △김영민[△]
△유규영[△] △민수원[△] △박병희[△]
△오현수[△] △이수영[△] △홍상윤[△]
△황제지[△]
◆**수과대** △강석주[△] △권혁룡[△]
△김병준[△] △김배원[△] △김영득[△]
△김영철[△] △김영준[△] △김종근[△]
△김형석[△] △명상준[△] △박기환[△]
△변광복[△] △신도규[△] △안성민[△]
△안환길[△] △오창남[△] △원문성[△]
△이정환[△] △이규남[△] △이성모[△]
△이승배[△] △이종하[△] △정영사[△]
△정유삼[△] △정종배[△] △조광영[△]
△조수우[△] △최성준[△] △최정민[△]

△최홍철[△] △황인하[△]
◆**약대** △고대승[△] △공영운[△]
△김건식[△] △김근혁[△] △김기동[△]
△김병각[△] △김척권[△] △김재태[△]
△김신일[△] △김용성[△] △김창호[△]
△김지배[△] △김종호[△] △김홍숙[△]
△김희모[△] △나명철[△] △노영재[△]
△노준식[△] △문정철[△] △박원규[△]
△박인수[△] △서동화[△] △손정식[△]
△삼규정[△] △양승국[△] △유태숙[△]
△윤의삼[△] △이강현[△] △이규승[△]
△이상규[△] △이성애[△] △이승하[△]
△이재욱[△] △이주선[△] △이형우[△]
△이희영[△] △임정욱[△] △전종현[△]
△전창수[△] △정국진[△] △정인명[△]
△정우영[△] △조기철[△] △최일근[△]
△추영규[△] △허갑우[△] △허병관[△]
△황용연[△]

◆**음대** △고원주[△] △공병우[△]
△김병철[△] △김성삼[△] △김지철[△]
△김철호[△] △박성희[△] △윤기숙[△]
△이근호[△] △이상룡[△] △이승희[△]
△이영숙[△] △이재원[△] △이정희[△]
△전병희[△] △차재정[△] △최 충[△]
△현병희[△]

◆**외대** △계수덕[△] △래형호[△]
△김경태[△] △김동원[△] △김병원[△]
△김상욱[△] △김영준[△] △김우영[△]
△김태현[△] △김희오[△] △김희철[△]
△박경수[△] △박기홍[△] △박신재[△]
△박윤찬[△] △성수원[△] △신 실[△]
△신용진[△] △양성환[△] △영문태[△]
△오경태[△] △우영남[△] △위정봉[△]
△유상호[△] △유정철[△] △이강진[△]
△이봉화[△] △이석배[△] △이영철[△]
△이의용[△] △이준철[△] △이정희[△]
△이해영[△] △정선명[△] △장선복[△]
△전동수[△] △전계근[△] △전정우[△]
△지영미[△] △최은식[△] △최일형[△]
△최창식[△] △한석상[△] △한석익[△]
△한승수[△] △홍식찬[△] △홍택유[△]
△황승택[△]

◆**치대** △강덕남[△] △강재범[△]
△공형규[△] △구기서[△] △권순배[△]
△김광희[△] △김기석[△] △김덕상[△]
△김승기[△] △김용철[△] △김일표[△]
△김재관[△] △김준환[△] △김정철[△]

△김한규⑤ △김형우⑥ △김화춘⑥
△문성철⑥ △박상섭⑥ △박상섭⑥
△박순영⑥ △박재경⑥ △박정동⑥
△박종화⑥ △박성동⑥ △서삼규⑥
△서창환⑥ △수재도⑥ △수화진⑥
△송노현⑥ △송연미⑥ △정삼영⑥
△오복환⑥ △오준규⑥ △우상민⑥
△우승표⑥ △유세정⑥ △유철호⑥
△윤수현⑥ △이공림⑥ △이규승⑥
△이민영⑥ △이병호⑥ △이상신⑥
△이성규⑥ △이신행⑥ △이유희⑥
△이한규⑥ △임종안⑥ △정삼일⑥
△정용호⑥ △정미악⑥ △조병연⑥
△차영남⑥ △최병진⑥ △최복근⑥
△최종훈⑥ △최진규⑥ △최현석⑥
△한보현⑥ △홍중욱⑥
◆대회원 △강 옥⑥ △김정환⑥
△김관성⑥ △김영구⑥ △문형근⑥
△박익환⑥ △변종영⑥ △열시정⑥
△오문성⑥ △유영현⑥ △이광재⑥
△정기환⑥ △정병희⑥ △정삼재⑥
△정원배⑥ △주양자⑥ △진정호⑥
△차근호⑥ △한상서⑥
◆경대원 △구지일⑥ △김상준⑥
△김우진⑥ △신준호⑥ △오진석⑥
△이재호⑥ △임영복⑥ △장민기⑥
△정성원⑥ △조양준⑥
◆고대원 △오철진⑥
◆보대원 △김학영⑥ △김효심⑥
△문경환⑥ △박승기⑥ △박기문⑥
△이귀남⑥ △이희진⑥ △한서경⑥
◆행대원 △강대영⑥ △곽대훈⑥
△권 옥⑥ △김동기⑥ △김병진⑥
△김재윤⑥ △김종성⑥ △김한민⑥
△김정철⑥ △박나준⑥ △유금복⑥
△윤종화⑥ △이상민⑥ △이상열⑥
△이태종⑥
◆한대원 △김동진⑥ △김유수⑥
△김현석⑥ △안영식⑥ △임동택⑥
△장병철⑥
◆AMP △김일재① △김은채①
△김희조⑥ △고상환⑥ △고시복⑥
△고자용⑥ △과 지⑥ △박재근⑥
△구광일⑥ △구종태⑥ △권용관⑥
△권익부⑥ △권정원⑥ △김 학⑥
△김 훈⑥ △김강정⑥ △김진홍⑥
△김경하⑥ △김광수⑥ △김규성⑥

△김길조⑥ △김익수⑥ △김동현⑥
△김상봉⑥ △김선동⑥ △김선종⑥
△김성규⑥ △김성중⑥ △김성환⑥
△김소용⑥ △김수환⑥ △김승배⑥
△김승유⑥ △김영열⑥ △김정현⑥
△김용남⑥ △김이환⑥ △김일길⑥
△김장규⑥ △김정환⑥ △김정규⑥
△김종진⑥ △김종철⑥ △김진열⑥
△김충배⑥ △김치형⑥ △김태중⑥
△김필수⑥ △김현수⑥ △김홍배⑥
△김홍식⑥ △김우우⑥ △김정규⑥
△노경성⑥ △노신호⑥ △노원근⑥
△노정남⑥ △마용도⑥ △문정국⑥
△민정배⑥ △신영배⑥ △박병수⑥
△박서하⑥ △박성규⑥ △박수홍⑥
△박영서⑥ △박민중⑥ △박재철⑥
△박종규⑥ △박종원⑥ △박진규⑥
△박진열⑥ △박현규⑥ △배정환⑥
△백식기⑥ △백은광⑥ △백정기⑥
△서영태⑥ △서종덕⑥ △손대성⑥
△송양병⑥ △송용환⑥ △송정식⑥
△신병철⑥ △신문우⑥ △신정진⑥
△안상익⑥ △오동빈⑥ △오인환⑥
△유근환⑥ △유도재① △유우동⑥
△유성규⑥ △유시정⑥ △유재우⑥
△유재전⑥ △유진광⑥ △유한섭⑥
△윤식학⑥ △윤경원⑥ △윤계준⑥
△윤동근⑥ △윤성민⑥ △윤종배⑥
△이광우⑥ △이광호⑥ △이규민⑥
△이기열⑥ △이대희⑥ △이동희⑥
△이민희⑥ △이방수⑥ △이병규⑥
△이병달⑥ △이병정⑥ △이봉우⑥
△이상복⑥ △이석빈⑥ △이성길⑥
△이성열⑥ △이신현⑥ △이세라⑥
△이수중⑥ △이영석⑥ △이영숙⑥
△이영환⑥ △이원구⑥ △이유진⑥
△이인영⑥ △이장국⑥ △이정현⑥
△이장수⑥ △이정열⑥ △이종근⑥
△이종연⑥ △이종철⑥ △이종환⑥
△이준근⑥ △이진선⑥ △이재욱⑥
△이철희⑥ △이춘호⑥ △이태섭⑥
△이태희⑥ △이학용⑥ △이한준⑥
△이홍규⑥ △이희상⑥ △임영준⑥
△임장섭⑥ △임태수⑥ △정경석⑥
△정영섭⑥ △정영태⑥ △전태성⑥
△정광훈⑥ △정동인⑥ △정병호⑥
△정성용⑥ △정성태⑥ △정석현⑥

△정연동⑥ △정우형⑥ △정일기⑥
△정원택⑥ △재환기⑥ △조내복⑥
△조과현⑥ △조민상⑥ △조봉규⑥
△조원라⑥ △조봉구⑥ △조형수⑥
△진지순⑥ △채아송⑥ △최동규⑥
△최병택⑥ △최상남⑥ △최성택⑥
△최숙주⑥ △최오원⑥ △최용호⑥
△최용택⑥ △최용호⑥ △최원득⑥
△최인호⑥ △표마리⑥ △한수도⑥
△한용희⑥ △한재열⑥ △한종희⑥
△한지후⑥ △허 남⑥ △허신규⑥
△현경자⑥ △홍경선⑥ △홍기욱⑥
△홍기호⑥ △홍성표⑥ △홍영우⑥
△홍원기⑥ △홍고인⑥ △황기연⑥
◆AIP △고득수⑥ △김병년⑥
△강정영⑥ △고상언⑥ △고희숙⑥
△권영아⑥ △권태현⑥ △김강산⑥
△김경호⑥ △김경환⑥ △김규현⑥
△김성진⑥ △김승진⑥ △김원환⑥
△김우식⑥ △김원배⑥ △김원필⑥
△김재우⑥ △김종열⑥ △김진규⑥
△김진수⑥ △김태형⑥ △김태호⑥
△김해산⑥ △김배현⑥ △김후근⑥
△나재열⑥ △남근식⑥ △마재관⑥
△맹홍우⑥ △문규원⑥ △박동일⑥
△박성우⑥ △박재근⑥ △박장산⑥
△박영목⑥ △박형구⑥ △박환기⑥
△배희숙⑥ △백인창⑥ △박준기⑥
△서우열⑥ △손이종⑥ △손인국⑥
△송남주⑥ △신강석⑥ △안정환⑥
△역시종⑥ △예상호⑥ △우동석⑥
△유승철⑥ △유재국⑥ △윤기호⑥
△윤병수⑥ △윤백중⑥ △윤창국⑥
△윤원식⑥ △이민기⑥ △이상규⑥
△이상원⑥ △이성철⑥ △이성희⑥
△이영삼⑥ △이목수⑥ △이종대⑥
△이준근⑥ △이종기⑥ △이정섭⑥
△이종연⑥ △이희규⑥ △이현영⑥
△임자현⑥ △임종민⑥ △임치열⑥
△전영하⑥ △정두영⑥ △정연규⑥
△조종제⑥ △조종진⑥ △조한남⑥
△차경중⑥ △최경호⑥ △최원태⑥
△최익선⑥ △최정규⑥ △최정규⑥
△최진용⑥ △최정호⑥ △최필근⑥
△추현식⑥ △허광운⑥ △허우식⑥
△한도식⑥ △함본숙⑥ △허성환⑥
△황남석⑥ △황수홍⑥ △황이남⑥

◆ACAD △강경보⑥ △고세일⑥
△공운현⑥ △곽기영⑥ △권성문⑥
△권원배⑥ △권태욱⑥ △김 기⑥
△김 철⑥ △김정래⑥ △김기후⑥
△김기봉⑥ △김기성⑥ △김덕영⑥
△김덕철⑥ △김동섭⑥ △김동일⑥
△김동찬⑥ △김병진⑥ △김복근⑥
△김성열⑥ △김성기⑥ △김수민⑥
△김진준⑥ △김승영⑥ △김연수⑥
△김영수⑥ △김영철⑥ △김의준⑥
△김상근⑥ △김정환⑥ △김재진⑥
△김종아⑥ △김종훈⑥ △김정규⑥
△김현호⑥ △김현수⑥ △김현수⑥
△김호일⑥ △김환봉⑥ △노희찬⑥
△김영식⑥ △민병문⑥ △박대열⑥
△박문희⑥ △박상민⑥ △박상하⑥
△박용호⑥ △박정식⑥ △박동식⑥
△방인홍⑥ △박석봉⑥ △서대민⑥
△손인조⑥ △신진식⑥ △신정수⑥
△심영철⑥ △인광환⑥ △인신환⑥
△안영기⑥ △안준태⑥ △안원환⑥
△여익근⑥ △윤기삼⑥ △윤문인⑥
△아관배⑥ △이근일⑥ △이달화⑥
△이대호⑥ △이대형⑥ △이동호⑥
△이범준⑥ △이병정⑥ △이영숙⑥
△이영태⑥ △이욱기⑥ △이은호⑥
△이종근⑥ △이진영⑥ △이정길⑥
△이충배⑥ △이아하⑥ △이정규⑥
△임동섭⑥ △임종규⑥ △장노교⑥
△장해익⑥ △장병순⑥ △전진명⑥
△전배성⑥ △정병철⑥ △정영성⑥
△정용남⑥ △조내조⑥ △조영만⑥
△조희연⑥ △주영순⑥ △지태욱⑥
△최열근⑥ △최학현⑥ △홍성권⑥
△홍근주⑥
◆ABP △강호식⑥ △고경일⑥
△김원태⑥ △김정길⑥ △김혁식⑥
△류광하⑥ △문형구⑥ △박순중⑥
△박정현⑥ △박형규⑥ △서갑석⑥
△양봉우⑥ △이영호⑥ △이종원⑥
◆SGS △곽승영⑥ △노영일⑥
△박상열⑥ △박순서⑥ △박순선⑥
△정준현⑥
◆APC △강명오① △송승기④
△이동훈⑥ △이명원⑥ △조근상⑥
◆HPM △구진숙⑥ △김강희⑥
△김정태⑥ △김광화⑥ △김낙기⑥

△김동희⑥ △김복근⑥ △김명준⑥
△김미숙⑥ △김병수⑥ △김복희⑥
△김봉현⑥ △김성백⑥ △김수평⑥
△김영식⑥ △김태영⑥ △김형진⑥
△김환중⑥ △류기광⑥ △류형중⑥
△류희근⑥ △박무성⑥ △박요배⑥
△순규호⑥ △순재민⑥ △신정식⑥
△한원희⑥ △함우진⑥ △함글림⑥
△하규진⑥ △이덕순⑥ △이영연⑥
△이영태⑥ △이은숙⑥ △이재현⑥
△이태수⑥ △이학환⑥ △이종태⑥
△임일규⑥ △조남서⑥ △정영규⑥
△정인화⑥ △정지행⑥ △정철수⑥
△정희순⑥ △조강영⑥ △조갑제⑥
△조용수⑥ △주부림⑥ △주영진⑥
△진선득⑥ △최병수⑥ △최정봉⑥
△최정환⑥ △한 웅⑥ △홍의표⑥
△황영희⑥ △황학선⑥
◆AMPP △최인규⑥
◆AIC △김문호⑥ △김익중⑥
△김진호⑥ △김현식⑥ △서민중⑥
△서용희⑥ △이국제⑥ △이경길⑥
△이우종⑥ △이종국⑥ △최세근⑥
◆AFB △이동락⑥ △최영기⑥
◆AMPFRI △구본진⑥ △김경성⑥
△남준환⑥ △서정용⑥ △임동수⑥
△유병목⑥ △유영복⑥ △이동현⑥
◆ACPMP △김영환⑥ △전영철⑥
△조대선⑥
◆HP △박종민⑥ △이호정⑥
△한성택⑥
◆GLP △박찬식⑥ △강영진⑥
△김태현⑥ △남준중⑥ △박종태⑥
△신수환⑥ △안재삼⑥ △유영덕⑥
△이찬원⑥ △이성휘⑥ △이원장⑥
△이준형⑥ △이종선⑥

분담금

◆브라지리부 1,000\$

7월 계 : 25,410,000원
평성회비 : 43,300,000원
입 회 비 : 1,030,000원
총 계 : 948,624,074원